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대표 시범단, 중국 순회 시범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

대한태권도협회는 중국 국제 우의 촉진회 한중문화교류중심의 초청으로 지난 5월 22일 중국에 한국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여 북경, 상해, 곤명, 서안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6월 4일 귀국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92년도에 최초로 중국에 시범단을 파견하여 북경과 연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이래 93년도에는 북경, 심양, 하얼빈, 상해, 94년도에는 연길 훈춘, 심양, 북경, 천진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여 태권도 보급은 물론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사기를 북돋운바 있다.

최세창 협회장을 단장으로 한

시범단은 중국에 태권도의 올림픽 채택을 홍보하고 태권도의 보급을 촉진하였는데 시범단의 일정별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5월 23일 상해
 - 체육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체육관계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
2. 5월 25일 곤명
 - 곤명시체육관에서 곤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4천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 보이며 국위선양과 함께 한국 태권도의 세계화 현황 홍보.
 - 최세창회장은 곤명시 체육성장관에게 호구, 태권도복, 태권도 비디오 테잎 등 태권도 용구를 전달했다.
 - 1천여명은 자리가 없어 되돌아가는 등 태권도에 대한 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함.
3. 5월 27일 서안-체육대학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
4. 5월 30일 북경
 - 북경 체육대학에서 20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어, 한국대표시범단은 대회 개회식에서 시범을 보이며 태권도의 빼어난 기술과 위력을 보이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널리 인식시켰다.
5. 6월 2일 북경
 - 북경극장에서 일반 관중 800



곤명시 체육성장관에게 태권도 용구를 전달하는 최세창회장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시범을 성황리에 종료

(대표 시범단 명단)

▲ 단 장 : 최세창(대한태권도
협회 회장)

▲ 부단장 : 김인석(대한태권도
협회 이사)

▲ 감 독 : 노우종(대한태권도
협회 운영부장)

▲ 코 치 : 이규형(미동국민학
교 태권도부 감독)

▲ 주 무 : 이춘현(문화체육부
사무관)

▲ 선 수 : 구정희, 이춘우, 김
성진, 강명언, 최규영, 이정민,
이덕희, 구본환, 임미화, 정병
민, 변관철, 박 훈

미국 씨애를 광복 50주년 기 념행사에 시범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미국 씨애
를 타코마 지역에서 행해지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한다.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임원 5명, 선수 2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
범단은 친선경기 및 시범경기를
통하여 한미간 우호를 증진하고
태권도를 저변확대하며 한인교
포들을 격려한다.

시범단은 8월 3일 타코마 미
육군, 공군부대에서 태권도시범
을 펼치며 8월 5일 한인교포 광
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 8월 6일은 한,
미 친선 태권도 대회도 가질 예

정이다.

한편 워싱턴 주지사는 8월 5
일을 워싱턴주 태권도의 날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4회 베트남국제태권도대 회 경남대표선수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호치민 판딩
팡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
4회 베트남국제태권도선수권대
회에 경남협회 소속 대표 선수
를 파견한다.

베트남 국제 태권도대회는
1992년 창설되어 한국과 베트남
과의 첫번째 스포츠 교류가 시
작되어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시범 및 친선경기를 가진 바
있고 93년에는 한국대표선수단
을, 94년도에는 부산협회 대표
선수를 파견한 바 있다.

▲ 단장 : 박동열(경남협회 부회
장)

▲ 부단장 : 박중경(경남체고 코
치)

▲ 감독 : 정천수(경남협회이사)

▲ 남자코치 : 장동규(경남협회
심사분과위원장)

▲ 여자코치 : 정인화(경남협회
경기분과위원장)

▲ 국제심판 : 김선규(경남협회
전무이사)

▲ 선수(남자)
정진성, 김종삼, 김용범, 최영
두, 이명진, 김국진, 서주환(경
남체고), 김상곤(고현중 교사)
▲ 선수(여자)

이귀연(사천여중고), 허성미(연
초여중), 권정우(함양체육관),
김원진(사천여중고), 정미향(경
남체고), 박지영(거창 장무체육
관), 정윤경(상명여대), 김영림
(사천여중고)

제2회 하노이 국제 태권도 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하노이 태권도연맹이 주최하
는 제2회 하노이 국제대회가 8
월 2일부터 6일까지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단장, 코치,
심판 등 3명의 임원과 국가대표
선수 2진으로 구성된 남자 8체
급 대표를 파견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태권도 교류
를 확대하기 위해 하노이 체육
성 및 하노이 태권도 연맹의 주
최, 주관으로 지난해 창설된 하
노이 국제태권도대회에는 6체급
선수가 파견되어 금5, 은1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하노이에서의 태
권도 보급을 강화하였다.

(대표선수단 명단)

▲ 감독 : 박창덕(대한태권도협
회 교육분과위원장)

▲ 코치 : 양대승(한체대 코치)

▲ 선수

편급/지진성(한체대), 플라이
급/고동환(한체대), 밴텀급/김
인경(상무), 페더급/김정호(경
희대), 라이트급/이동주(동아
대), 웰터급/장종오(상무), 미
들급/최승길(용인대), 헤비급/
강승수(상무)

태권도 소식

▲ 국제심판 : 김갑식(대한태권
도협회 경기분과부위원장)

국제경기대회 유공자 문원재 코치 기린장 수상

4월 27일 문화체육부 5층 회의실에서 거행된 국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문원재 코치가 기린장을 수상했다.

문원재코치는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한국대표팀 코치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4체급을 모두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하며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이번엔 훈장을 받게 된 것이다.

국가대표선수 관계규정 개정, 관리지침 확정

대한태권도협회는 4월 6일 기술심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가대표선수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95년도 대표선수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임원 및 선수는 장단기 강화훈련에 참가하여야 하며 강화훈련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제12 및 제5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파견될 국가대표선수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실시될 강화훈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는 다른 국내외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97년 부산 동아시아대회 태권도 등 12개 종목 각축

오는 97년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태권도를 비롯해 12개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제10차 동아시아경기대회협회는 3월 13일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 호텔에서 10개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 27명의 회의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97년의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을 태권도, 육상, 수영, 복싱, 유도, 역도, 레슬링, 체조,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 11개종목과 조정, 정구, 유투 등 3개 종목 중 1종목을 기술위원회에서 검토후 추가선평정으로 했다.

체코, 슬로바키아에 송원우 사범 파견

동유럽 지역의 태권도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간 체육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화체육부의 체육외교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원인 송원우 사범이 파견되었다.

파견기간은 5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6개월간으로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 태권도를 보급, 확산하게 된다.

송원우사범은 1973년생으로 현재 4단이며, 태권도 사범 자격증,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3급 태권도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회지에 송용주사범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회지내에 태권도를 보급, 확산시키기 위하여 송용주사범을 파견하였다. 6월 5일 출국해, 8월 5일까지 2개월간 회지내에 태권도를 보급하게 될 송용주사범은 1968년생으로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5단이며 사범 자격 및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여중학교 태권도부 7개팀 (재)광신 여성체육진흥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수여

꿈나무 여성 태권도인 육성을 통해 우수선수를 배출해오며 여성체육발전에 기여해온 여자중학교 태권도부 7개팀이 재단법인 광신 여성체육진흥재단(이사장 최규희)으로부터 총 7백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여성체육 진흥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하는 광신 장학재단이 꿈나무 지원 사업으로 여자중학교 태권도 육성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난 3월 14일 95년도 국가대표 선발 예선 경기 개최식이 펼쳐

진 국군체육부대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팀은 자양중학교, 대원여자중학교, 신암중학교, 용곡중학교, 만수여자중학교, 고양중학교, 부흥중학교 등 7개교 태권도팀으로 팀당 1백만원씩 지급되었다.

서울특별시협회

태권도 지도자 체육대회

서울시협회는 태권도의 2천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기념해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릉선수촌 운동장에서 서울시 태권도 지도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태권도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체육행사를 통해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고 태권도가 영구히 올림픽종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화합단결을 이루며 태권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초중고 개인대회 개최

서울시협회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기원에서 제15회 서울시 초중고 개인선수권대회 겸 제76회 전국체전 서울대표 고등부 2차 선발대회 및 마카오 경찰청 임원 초청행사를 가졌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교부: 엄주용(송례국), 박종현(중랑국), 고정희(마천국), 이상욱(신천국), 백봉현(남천국), 안준록, 이수환(방학국), 김지호(세곡국), 이수경, 김혜미(은천국), 김동현(화계국)

▲중등부: 최광철, 김교식, 고현중, 서경환(배명중), 김태경, 라재철(자양중), 손두섭(당곡



서울시 태권도 지도자 체육대회 개최식 모습

태권도 소식

중), 이창희(사당중), 이형철(동성중), 한동훈(한성중), 김성환(경수중)

▲ 고등부 : 최병준, 박동순(성동고), 홍일화, 최인영(동성고), 박상규(송곡고), 장세용(리라공고), 이준희(단대부고), 조원철(서울체고)

4월 한달간 1, 2, 3품 7501명 1, 2, 3단 708명 심사합격

서울시험회는 4월 9일과 30일 1품에 대한 승품심사를 실시하고 2210명과 2882명 등 5천여명과 4월 23일 2, 3품 심사에서 2품 2045명, 3품 36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편 4월 16일 거행된 승단심사에서는 1단 373명, 2단 199명, 3단 136명 등 총 70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부산광역시시험회

부산협회 신임회장에 이우현씨 취임



부산협회는 3월 2일 11시 부산호텔 회의실에서 전체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우현 부산문화방송(주)대표이사 사장을 새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황종국 전무이사 선임



부산협회에서는 2월 9일 11시 부산호텔 회의실에서 실무, 재정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8시간의 난산끝에 황종국씨(연미체육관관장)를 전무이사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부산협회는 3월 28일 11시 코모도호텔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4년도 사업 및 결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임기 만료된 신임 감사 선출에서는 윤병갑, 이경구씨가 연임됐다.

한편 우수선수 및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수선수상 : 이상민(송도국교), 박천덕(향도중), 박광기(개금고교), 진준수(동의대), 이현석(부산시체육회), 조재영(배정여상)

▲ 지도자상 : 정원태(배정여상), 김용호(동여중)

▲ 공로상 : 김우규, 오용철(부산협회 이사), 정종신(한림체), 신기완(국민체), 이인재(무양체)

▲ 모범회원상 : 광영호(고당산체), 이형두(명장체), 안효열(아카데미체)

종별태권도대회 개최

95년도 첫대회인 종별태권도대회가 3월 30일과 31일 구덕체육관에서 60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에 앞서 이우현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대회는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와 우수한 선수를 발굴성장시켜 향도태권도 발전의 역군이 될 선수육성에 그 뜻이 있는 대회인만큼 각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소년체육대회 개최

부산협회는 지난 4월 21일 구덕체육관에서 '95 부산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중학부는 전국 소년체전 대표선발을 겸한 경기로 펼쳐져 체급별 우승자는 부산대표로 출전

하게 되었다.

(부별 우승자 명단)

▲ 국민학교부 : 박준형, 김경록(장전국교), 송병진(아미국교), 심중무(연산국교), 이정훈(향도국교), 김종묵(하남국교), 손범락, 신성우, 서장우, 김준환, 김진석(반여국교)

▲ 중학교부 : 황원영, 김길배, 한지운(향도중), 김태홍, 권정근, 하태호(영남중), 하형훈(덕원중), 허용운, 김단호, 안태경, 김권중(반여중)

승품, 단 심사대회 실시

부산협회는 4월 30일 사직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3,22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생활체육 확산에 기여한 5개 우수도장을 표창했다.

합격자별 품, 단현황을 살펴보면 1품 1,945명, 2품 761명, 3품 202명, 1단 146명, 2단 104명, 3단 68명이다.

▲ 우수도장 표창 : 황상철(선무체), 김규인(구봉체), 정대동(한독체), 이미옥(무아체), 한명수(정무체)

〈부산 윤성도 편집위원〉

대구광역시협회

“국제축구대회” 어린이 태권도시범

5월 7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브라질과 올림픽대표 한국선수와의 경기에 앞서 만오천여명의 관중 앞에서 대구 무지개체육관(관장 김응석)의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20분간 태권도시범을 화려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외국선수와 외국귀빈들은 물론 관중들을 깜짝놀라게 해 태권도 종주국이란 것을 한번 더 실감하게 만들었다.

이날 태권도 시범은 MBC방송국에서 중계방송을 하여 태권도 홍보에 기여했다.

제2차 승품(단) 심사대회

대구협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2,413명의 유품, 유단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 1,488명, 2품 : 592명, 3품 : 145명, 1단 : 85명, 2단 : 39명, 3단 : 34명, 4단 : 21명, 5단 : 7명이다.

제5회 어린이태권왕 겸 수창국교장기 대회

대구수창국민학교 태권도발전위원회 주최로 6월 3, 4일 양일간 50여개의 국민학교에서 체급별로 남아 237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제5회 대구수창국교장기대회 및 어린이 가장돕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품새 및 겨루기시합과 함께 어린이 가장 20여명에게 금일봉 격려금도 주어지는 등 뜻깊은 행사였다.

태권도 소식

겨루기 부문 단체우승은 아양국교, 준우승은 자봉국교, 3위는 화원국교, 감투상은 진천국교, 장려상은 고산국교에게 각각 영예가 돌아갔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인천광역시협회

승품단 심사 실시

인천광역시협회는 4월 16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1, 02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599명, 2품 261명, 3품 72명, 1단 28명, 2단 15명, 3단 13명, 4단 25명, 5단 15명이다.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광주광역시협회

체육관 협의회 친목회의

광주광역시 태권도 관장들의 친목단체인 체육관 협의회에서는 3월 22일 국민생활관에서 월례회를 갖고 친목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대표선수단 위문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의에서 5.21 광산구 금호타이어 구장에서 태권도 관장 및 모든 가족들을 포함한 친목체육대회를 갖기로 하였고, 또한 소년체전 선수단들에게 5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신임 김정록회장은 전임 집행부 임원이었던 한길진 회장과 윤웅석 총무, 임광섭 서기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제9회 교육감기 대회 개최

광주태권도협회는 첫 시합인 제9회 교육감기 시합을 3월 25일과 26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중등부 소년체전 대표선수 선발을 겸하여 개최하였다.

그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4백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태권도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각 부별 입상팀과 소년체전 선발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종합성적)

▲ 초등부

1위 : 하남동국, 2위 : 대자국, 3위 : 문흥중앙국, 감투 : 오치국, 장려 : 무등국

▲ 중등부

1위 : 문성중, 2위 : 북성중, 3위 : 상무중

▲ 고등부

1위 : 광주체육고, 2위 : 문성고, 3위 : 고려고

▲ 제24회 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선수 : 한서용, 전창일, 선영준, 장부식(문성중), 김진모, 최준철(체육중), 이종재(상무중), 오현택, 문병욱, 정종배(북성중), 오세종(동신중)

이 시합에서 광주 최초로 여성심판 2명이 등장하여 많은 관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청도체육관 사범인 정문자 심판원(25세, 4단)과 한국체 16도장 사범인 김동희 심판원(27세, 4단)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취약한 여성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무중학교 태권도 훈련장 개관식

이 지역 태권도 육성학교인 상무중학교는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위하여 태권도 전용 훈련장을 개관하였다.

그 동안 학교에 훈련장이 없어 인근에 있는 전남체육관 13도장을 오가면서 훈련을 해 왔으나 훈련장 개관으로 인하여 선수들의 사기와 실력향상이 예상된다.

문성중학교 창단 4년만에 종합우승

광주 문성중이 5월 11일 폐막된 제22회 중·고 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올해로 팀창단 4년째인 문성중은 페더급 1위 최홍식, 핀급 2위 한서용, 라이트급 3위 선영준, 미들급 3위 윤승환의 활약에 힘입어 영예의 왕좌에 올랐다. 이들은 5월 16일 광주체육회 사무실에서 축하와 격려금을 전달

받고 이어서 광주태권도 협회장인 김주훈 회장을 방문하고 격려를 받았다. 김주훈회장은 어린 선수들의 선전을 축하하고 아울러 소년체전 및 타 시합에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선대학교 태권도부 영국초청 군월게임 참가

영국에서 개최되는 군월게임의 초청팀인 조선대학교 태권도부가 5월 23일 결단식을 갖고 임원 6명과 선수8명이 파견되어 9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여 태권도 종주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대회에 파견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 위승두 교수

감독 : 윤오남

코치 : 이계행

심판원 : 고동성, 이동원, 최종섭
선수 : 핀급-조성일, 플라이-김봉찬, 밴텀-김영록, 페더-나덕호, 라이트-김인동, 웰터-김부권, 미들-김원식, 헤비-하종선

태권도 가족 친목체육대회

광주체육관협의회는 5월 21일 금호타이어 구장에서 태권도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친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광주의 143개 체육관 가족들은 각구별로 6개조로 나누어 축구, 배구, 피구 및 릴레이 경기를 펼쳐 푸짐한 경품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대회에서 동구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김정록회장으로부터 우승기와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중고연맹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문성중학교팀을 축하하는 김주훈 회장

태권도 소식



태권왕으로 선발된 김남중(대자국)과 윤효원(문성중)

제9회 태권왕기 대회

영주종합체육관에서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초·중학교 태권왕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국민학교태권왕은 대자국의 김남중, 중학교 태권왕은 문성중의 윤효원이 영예를 차지했다.

(부별종합성적)

▲초등부

1위 : 대자국, 2위 : 문홍중앙국, 3위 : 하남동국, 감투 : 무등국, 장려 : 월산국

▲중등부

1위 : 문성중, 2위 : 북성중, 3위 : 광주체육중

한편 고·대·일반부는 제76회 전국체전 1차 선발을 실시하여 여각 체급별 1, 2위가 결정되었다.

이들은 6월 24일 2차대회 입상자들과 최종선발전을 갖게 된다.

광주협회에서는 이 대회와 겸하여 6월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여

많은 관중들의 호응을 얻고, 심사에 응심하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시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광주협회는 992명의 수련생이 응심한 이 심사에서 우수한 응심자 품새 5명과 겨루기 5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하였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대전광역시협회

제7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대전시는 제7회 시민체육대회를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어린이날 행사와 더불어 성황리에 치루었다.

태권도 부문 경기는 성인부와 국교부로 구분되어 다목적 체육관에서 각 구청대표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소속구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성인부에서는 40세가 넘는 선수와 20대 중반 선수의 대

결이 관중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진행 되었고, 후배선수는 선배 선수에게 예를 갖추고 선배선수는 후배선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 태권도인의 무도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종합성적)

우승 : 유성구
준우승 : 동 구
3위 : 중 구

제7회 동구 청장기 대회

지난 4월 8일 대전실업전문대학 체육관에서는 제7회 동구청장기 태권도 대회가 12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선수들은 그동안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으며 이자리에서 한용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덕을 갖춘 태권도인이 되어 주길 당부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지도해 준 지도자나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 체급별 우승자 명단 : 김동현, 최봉열, 주정민, 한광호, 정희선, 최일수(홍릉국), 이광록, 홍제완(대동국), 한윤철(신흥국), 윤병환(가양국), 구연미(천동국),
▲ 단체성적 : 우승 : 영광체육관, 준우승 : 호암체육관, 3위 : 동신체육관

제2회 서구 청장기 대회

대전 서구청은 4월 9일 제2회 서구청장기 태권도 대회를 올림

픽 기념 국민 생활관에서 품새 경연대회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자리에는 자녀들의 경기를 지켜 보기 위하여 찾아온 학부모님들로 경기장의 열기가 한층 뜨거웠으며 올림픽 꿈나무들의 태권도 기량을 지켜보며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한용석 협회장은 어린이 선수들에게 정형 당당한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평소 쌓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가운데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자리를 굳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체급별 우승자 명단
서재은, 양정모, 이세호, 박봉환(둔산체), 김대규, 송진섭(현무체), 이희찬, 한경수(충남체), 문민규(보리야체), 강현민(정심체), 임덕병(대건체)

▲ 단체전
우승 : 둔산체
준우승 : 충남체
3위 : 현무체

▲ 품새부분
우승 : 현무체
준우승 : 대건체
3위 : 독수리체

<대전 신재홍 편집위원>

경기도협회

신인종별대회 개최

경기도협회는 신인종별 선수

권대회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다.

남자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에 1226명, 여자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에 275명 등 총 1501명이 참가해 열전을 치루며 신인유망주를 배출했다.

협회장기대회 개최

경기도협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남여선수 128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경기도 태권도 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고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부별 우수선수 81명에게 장학증서와 2천 4십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도민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제41회 도민체육대회(시·군 대항) 태권도 경기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안양 중앙국교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 대회에는 수원시 외 15개시, 용인군 외 12개군 등 총 28 시, 군에서 194명이 참가했다.

▲ 종합성적

1위 : 수원시, 용인군
2위 : 안양시, 화성군
3위 : 부천시, 이천군

<경기 김형호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제18회 회장기대회 개최

태권도 소식

강원도협회는 제18회 회장기 태권도 대회 및 제76회 전국체육대회 강원도 1차 선발대회를 4월 22일과 23일(2일간) 삼척시 삼척산업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등부(남)

박민열(평원중), 강진규(춘천중), 함광천(강릉중), 김종훈(압구중), 함동우(경포중), 지정환, 이덕희, 김지훈(강원중), 이상환(횡성중), 심규순(서화중), 최승룡(홍천중)

▲ 고등부(남)

이창재, 최정원, 오석량(강원사대부고), 윤석수, 이주복, 이판근, 정유천, 이원호(강원체고)

▲ 중등부(여)

정선미, 김미경(관동여중), 진효순, 김윤지(춘천여중), 조방글(남춘천여중), 조종연(상지여중), 최민경(유봉여중), 최부연(인제여중), 권민지(북원여중), 이선희(원통중), 이애선(도계여중)

▲ 여자부

정선영, 장은정, 이선영(강원체고), 최수진(도계여고), 조은선(춘천시), 안정림, 최숙희(함백여고)

▲ 일반부

최선용(원주), 박원호(인제), 김창수(삼척), 조옹희(삼척), 이근선(횡성), 김서현(삼척), 유인철(인제), 임호빈(양구)

(단체성적)

▲ 중등부

종합우승: 강원중, 준우승: 춘천중, 3위: 홍천중, 감투상: 경포중, 장려상: 서화중, 최우수선수상: 이덕희(강원중)

▲ 고등부

종합우승: 강원체고(A팀), 준우승: 강원사대부속고, 3위: 강원체고(B팀), 감투상: 사북고, 장려상: 진광고, 최우수선수상: 이주복(강원체고)

▲ 중등부(여)

우승: 도계여중, 최우수선수상: 김난주(도계여중)

▲ 일반부

종합우승: 삼척시, 준우승: 횡성군, 3위: 양구군, 감투상: 인제군, 최우수선수상: 조옹희(삼척시)

어린이태권왕 대회

5월 13일과 14일 2일간 홍천군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태권왕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민학교 고학년(남)

김근영(영동국), 서동현(명덕국), 최길성(춘천중앙국), 이대성, 이성구(치악국), 이태리, 김성규(근화국), 박재영(근화국), 이광호(옥천국), 최희철(기린국), 정상구(춘천남산국)

▲ 저학년(남)

장원(옥천국), 이성규(부안국), 박명근(호반국), 박영재(홍천국), 김주현(춘천중앙국), 신철민(소양국), 노신영(석화국), 유

주현(동부국)

▲ 여자부

최민숙(강릉남산), 이은혜(소초국), 이정림(명덕국), 김혜영(소초국), 임이슬(소초국), 이성희(명덕국), 박은미(명덕국), 공미연(소초국), 김향란(춘천남산)

(단체성적)

▲ 국민부(고학년)

종합우승 : 근화국교, 준우승 : 치악국교, 3위 : 기린국교, 감투상 : 석화국교, 장려상 : 인제남국교

최우수선수상 : 박재영(근화국)

▲ 저학년

종합우승 : 춘천중앙국교, 준우승 : 부안국교, 3위 : 치악국교, 감투상 : 원주국교, 장려상 : 부평국교

최우수선수상 : 김주현(춘천중앙국교)

▲ 여자부

우승 : 소초국교, 준우승 : 명덕국교

최우수선수상 : 이은혜(소초국)

승품단 심사 개최

95년도 제2회 승품(단) 심사대회가 5월 12일 춘천시 국제체육관에서 개최되어 1품 : 632명, 2품 : 220명, 3단 : 59명, 4단 : 36명, 5단 : 16명 등 118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강원 최은식 편집위원〉

승품단 심사 실시

충북협회는 지난 3월 26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한 결과 1품 760명, 2품 282명, 3품 55명, 1단 57명, 2단 35명, 3단 27명, 4단 3명 등 총 121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2차 승품단 심사대회가 6월 25일 충북협회 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승품단 심사 실시

충남협회는 6월 25일 대전시 민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총 731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 합격자 명단을 보면 1품 343명, 2품 141명, 3품 13명, 1단 141명, 2단 62명, 3단 18명, 4단 10명, 5단 3명이다.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전라북도협회

제7회 도지사배 개최

전북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도지사배 단체 및 개인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교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여자부

등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뤘는데 종합성적은 다음과 같다.

▲ 국교부(남) : 1위 전주북국, 2위 대야국, 3위 군산나운국

▲ 국교부(여) : 1위 송광국

▲ 중등부(남) : 1위 군산동중, 2위 만경중, 3위 전주중

▲ 여중부 : 1위 흥덕중

▲ 고등부 : 1위 군산중앙고, 2위 함열고, 3위 전주상고

▲ 여고부 : 1위 김제북고, 2위 군산중앙여고, 3위 여산고

(체급별 우승자)

▲ 국교부(남)

배지홍, 송명훈(대야국), 한득훈, 김성준, 오성국(전주남), 박정국, 조태영, 서보민(전주북), 김상록(경포), 주우정(나운), 이건일(고창)

▲ 국교부(여)

박주명(군산구암), 김선영(군산경포), 김소희, 오영이, 유은옥, 채영순, 김수현(송광), 신나나(대야), 장은희(대야), 김신영(군산수송), 정혜연(정읍서)

▲ 중등부(남)

홍승호, 이지훈, 두상진, 김성중(군산동중), 정대성(고창남), 강재천(함열), 이성탄(정읍감곡), 손정우(소성), 반진석(풍남), 안두민(만경), 김주호(전주)

▲ 중등부(여)

채선민(옥구서), 박민정(이일), 정애진(소양), 홍재신(고창), 최주영(군산월명) 김명례, 김선미, 김유경(흥덕), 박상미(고창), 송인선(효정), 송주희(공음)

▲ 고등부(남)

충청북도협회

태권도 소식

서정관, 장우영, 박명훈(군산중앙), 김종탁, 전문성(합열), 이길도(배영종고), 강명수(신태인중구), 박명익(전주상고)

▲ 여고부

박정희, 김이래, 정영단, 이유자, 서은미, 김은정, 김희정(이상 김제북고), 전현희(부안여상)

▲ 일반부

허광석, 김경식(김제화랑), 김건동(원도체육관), 한재성, 황건하(서울체육관), 박세진(정의도장), 주용성(경희체육관), 배원형(중앙체육관)

▲ 우수선수상

박정국(전주북국), 김소희(송광국), 김성중(군산동중), 김선미(홍덕중), 육근영(군산중앙고), 서은미(김제북고)

▲ 최우수선수상

박명훈(군산중앙고)

▲ 지도상 수상자

이세형(전주북국), 한광엽(송광국교), 김상훈(군산동중), 채영주(홍덕중), 강용선(군산중앙고), 조문구(김제북고)

승품(단) 심사 개최

전북협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올해 제2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총 1,4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 단별 현황은 1품: 773명, 2품: 325명, 3품: 59명, 1단: 125명, 2단: 58명, 3단: 37명, 4단: 27명, 5단: 9명이다.

〈전북 정 철 편집위원〉

전남협회

춘계종별대회 개최

신인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춘계종별대회가 4월 1일과 2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어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중부

이종호, 이명현(여수중), 김대왕, 조인오(청계중), 김현수(구봉중), 김재인, 심영진(영화중), 소병훈(제일중), 박상희(금정중), 김맥동(군외중), 최인용(압해중)

▲ 남고부

김경호(영암고), 송창영, 박동호, 이재현(별교고), 서경오(완도고), 나성운(호남원예고), 이대섭(예당고), 함성무(마리아회고)

▲ 여자부

양은정(주암중), 서유란, 김경신(남산중), 김현(혜인여중), 박호위, 이민덕(장흥실고), 김선주(목포여중)

전국체전 1차 예선대회

4월 15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전남 1차 예선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부별 1, 2, 3위에 입상한 선수들은 6월 24일과 25일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개최될 2차 예선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과 다시 한번 겨루게 된다.

1차 예선대회 부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고등부

조정현, 허용남, 고병석(순천공고), 이철, 김형태, 고용수, 조대진, 홍현욱(여수고)

▲ 대학부

김현석(충남전문대), 고영민, 나상진(동아전문대), 마천국, 백주용, 임언우, 김환규, 최원집(동신대)

▲ 일반부

유창호, 한지환, 마정진(전남협회), 조석진, 박기영(장흥중앙체), 임봉근(공산체), 권성환, 신태수(과역체)

▲ 여자부

김보영(맹호체), 황정은(무안체), 신수정, 최영숙(구례고), 송미진(약산고), 노영미(여수화랑체), 정명숙(경희대)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전라남도민 화합을 다짐하는 도민체육대회가 여수시에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성대히 개최되었다.

태권도는 여수남국민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단체우승은 광양군, 2위 여수시, 3위 보성군이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는 정우용(순천시), 이석봉(고흥군), 성낙훈(광양시), 김현철(보성군), 강재원(담양군), 장종오(영광군), 빙원철(여수시), 최종국(함평군)이다.

태권왕기대회 개최

5월 6일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훈련장에서는 많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국민학교태권왕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단체우승은 1위 여천서국, 2위 동산국, 3위 영광법성포국민학교가 차지했다.

▲ 체급별 우승자: 이승재, 김명진, 강승민, 박도현(여천서국), 유법용, 진경남, 강지나(법성포국), 이명석(송지국), 오근학(동산국), 이상민(산정국), 신평일(목포 대성국)

천선 축구, 족구대회 개최

전남태권도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시, 군대항 축구대회가 올해는 족구대회와 함께 영광 해룡고등학교에서 각시, 군지회 임원 및 관장이 참가한 가운데 6월 4일 개최되었다.

승품, 단 심사대회 개최

전남협회는 응심자의 편의를 위해 4월 30일 순천팔마체육관과 5월 21일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4월 심사에서 1품 163명, 2품 50명, 3품 11명, 1단 12명, 2단 13명, 3단 8명, 4단 5명으로 총 262명과 5월 심사에서는 1품 265명, 2품 98명, 3품 14명, 1단 76명, 2단 38명, 3단 32명, 4단 18명, 5단

3명 등 총 544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경상북도협회

제7회 소년체육대회 개최

경북 꿈나무들의 한마당 잔치인 경북소년체전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교육청 주최로 영주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학도체전과 같이 치루어 왔지만 94년부터 소년체전이 분리 개최되어 규모면에서는 위축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더욱 알찬대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경북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태권도대회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하는 선발전과 겸하여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중등부만이 출전하여 치루어졌다.

▲ 체급별 우승자

전성영, 박성우, 정지훈, 배준용(체육중), 배운호, 김재혁(포항대동중), 이창은(상주 공검중), 하헌철, 이길호, 최지철(영천중), 김상언(포항 흥해중)

경북신인선수권대회

남, 여 신인선수권대회가 4월 3일부터 4일까지 대구체육관에서 초등부 147명, 중등부 134명, 고등부 106명, 일반부 13명, 여자부 37명 등 총 437명이 참가

태권도 소식

한 가운데 개최되어 선수들의 열띤 선전분투로 경기장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회 결과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초등부

서주태(도량국), 강희준, 임성수(형곡국), 김형진, 이영준(광평국), 안지운(문경국), 방지현(하양국), 우종민(용상국), 김삼균, 권도형(영화국), 김경태(고령국)

▲ 중등부

김재수(공검중), 이덕봉(고령중), 유재현(영천중), 김근호(일직중), 전상기(아포중), 금동식(풍천중), 이진우, 김재진, 김진욱(체육중), 권오건(공검중)

▲ 여자부

현미자, 허진숙, 최미애(고령여중고), 광혜영(대가야고), 우민혜(사별고), 이화전(영덕여중), 정순안(영광여고)

▲ 고등부

권순철, 이동섭(대창고), 이광훈, 한영용(영천고), 신원일(경북체고), 채홍환(함창고), 신병균(경북체고)

▲ 일반부

우용제, 강병재(태화체), 김혜수, 차병준, 안성찬(상주산업대)

제8회 구미시협회장기 대회

구미시협회장기 대회가 5월 20일 금오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박세직의원, 구미시장,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많은 내

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부 145명, 중등부 49명, 고등부와 일반부 통합 71명 등 총 265명이 참가하여 지방대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별종합성적

▲ 초등부

우승: 형곡국, 준우승: 황상국, 상모국, 3위: 광평국

▲ 중등부

우승: 형곡중, 준우승: 구미중, 3위: 선산중

▲ 고, 일반부

우승: 태양체, 준우승: 금오공고, 3위: 부광체

▲ 갑투상

도량국, 인동중, 경북체

▲ 부별최우수선수상

강희준(형곡국교), 장희준(형곡중), 김선기(태양체)

상주시태권도협회 신임 이규상회장 취임

상주시태권도협회는 95년도 2차이사회를 열고 김정규회장 후임으로 이규상 상주귀빈예식장 대표를 제4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5월 23일 귀빈예식장에서 기관장, 태권도계임원 및 각 시, 군 회장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제76회 전국체전 경북예선

전국체전 예선대회가 6월 1일 대구체육관에서 남, 여 총83명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전에 없던 패자부활전 경기방식을 채택하여 우수선수의 초전 탈락을 구제하였는데 최종선발된 선수는 다음과 같다.

▲ 고등부

임호진, 윤정호, 강정대(영천고), 최임준(포항수고), 신원일, 최봉준, 강상고, 윤종덕(경북체고),

▲ 일반부

이후길(장용체), 이중선(도리원체), 박재성, 서보훈, 박세진, 김용만, 박세홍(영천시청), 문선태(문경체)

▲ 여자부

김수연, 최진숙, 최미애, 박영미(고령여중고), 전현미(영광여고), 정문숙(고령체), 권미영(경북체고), 장윤정(경북협회)

〈경북 신웅우 편집위원〉

경상남도협회

품새교육 및 신 경기기술 훈련방법 연수회 개최

경남 협회는 태권도 지도자 품새 및 신 경기기술 훈련방법 강습회를 4월 15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약 500여 명의 경남협회 소속의 관장, 사범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참여 인원수가 말해주듯이 높은 관심과 열의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체육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유품자 및 유단

자의 품새동작을 정확히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국현 경남협회 순회코치의 “신경기기술 훈련방법”은 뛰어난 선수출신의 강습이라는 기대감으로 참가자들의 진지한 연수자세가 눈에 띄었고, 세밀하게 연수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평이었다.

제3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경남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영원한 전진을 약속하는 제3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항구도시 마산시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태권도 경기는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에 위치한 한일 전산여고 체육관에서 경남의 각 시,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마산시와 창원시의 여러기관, 단체의 열띤 응원속에서 치루어졌다.

한편, 이번 대회의 1위는 울산시, 2위는 마산시, 그리고 3위는 삼천포시가 차지하였으며 각 부별 개인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고등부 : 정진성(마산시), 김현진(창원시), 김용범(마산시), 한상준(남해군), 홍환호(마산시), 이민기(양산군), 이승훈(함양군), 김상수(마산시)

▲ 일반부 : 배대길(삼천포시), 이승욱(울산시), 정기정(창원시), 박기찬(진해시), 김영수(마산시), 박기채(울산시), 천창영

(김해시), 정충렬(진해시)

제121회 승품단 심사대회

경남협회는 6월 4일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278명의 응심자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제121회 승품, 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순달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제 태권도의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향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응심자들이 평소 열심히 연마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남태권도 기술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회장은 또 태권도의 국제화에 대해서도 언급, 경남협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베트남 태권도협회와 맺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더욱 더 나은 실력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도 박차를 가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심사에는 1품 1,248명, 2품 517명, 3품 72명, 1단 240명, 2단 110명, 3단 56명, 4단 13명 그리고 5단 12명등 총 2,278명이 응시하였다.

〈경남 김성실 편집위원〉

제주도협회

제30회 전도 태권도대회 개최

제주도협회는 제30회 전도 태권도대회(도지사기, 교육감기, 제주교육대학총장기) 대회를 4

태권도 소식

월 22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민학교부는 개인, 단체전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부를 포함한 일반부는 체급 구분없이 5명 단체 대항전으로 펼쳐져 선수간, 팀별로 열전이 펼쳐졌다.

승품단 심사 실시

제주도협회는 6월 17일 제주도 제주농고 체육관과 서귀포시 시민회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했다.

〈제주 김동훈 편집위원〉

대학연맹

남상해회장, 명예 경영학박사학위 취득

남상해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이 미국 루이지아나 뱍티스트 대학으로부터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학위를 받았다.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거행된 박사학위수여식에는 뱍티스트대학 위버총장일행을 비롯 대학태권도연맹 관계 임원 그리고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 학위취득을 축하했다.

위버총장은 학위수여와 함께 메시지를 통해 남상해 회장에 대한 사회적 업적을 찬양하고 기업가로서의 종적을 높이 치하하였다.

루지아나 뱍티스트대학은 종합대학교로서 약 40년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 명문대학이며 경영대학을 비롯한 문과대학·교육대학·예술대학 등으로 구성된 일반대학과 기독교 선교 사역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 강연회 개최

정범모 총장-스포츠 영재교육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6월 1일 오후 5시에 하림각에서 스포츠의 영재교육이란 주제로 한림대 정범모총장의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6월 1일부터 3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된 제22회 전국대학개인대회 개최와 함께 마련한 이날 강연회에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 및 체육관계인들이 참석했다.

〈대학 지병윤 편집위원〉



남상해회장이 위버총장으로 부터 학위를 수여받고 있다.

재독 대한태권도협회

제10회 주독대사배 개최

재독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우선)는 5월 13일 중부독일 레버쿠젠에 있는 비레트 실내체육관에서 485명의 선수와 교민 인사 등 1000여명의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주독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단체상 1위는 뮌스터체육관(관장 송찬호)이 차지했으며 2위는 사무라이 체육관(관장 김정근), 3위 뮌스터 체육관(관장 박창호), 4위 무사도체육관(관장 김홍영), 5위 폴란드 체육관(관장 이수광), 6위 브레멘 하펜 체육관(관장 김 춘)이 차지하였다.

국기원

승품단 년한 및 연령 산출 조정

국기원은 각 승품, 단별 년한 및 연령 산출시 년한(기한) 미달 및 나이 초과, 나이 미달에 있어서 현행 10일에서 15일까지를 적격 조치 하기로 조정하였다.

적용 시행일자 1995년 7월 1일 심사일자부터이다. **태권도**

95년 7~9월



행사안내

- ▲ 7월21일~23일 : 제4회 베트남국제대회
장소 : 호치민 판딩팡실내체육관
- ▲ 7월1일~3일 : 제7회 경희대 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장소 : 수원실내체육관
- ▲ 7월 24일~8월 8일 : 제84기 사범 및 생활체육지도자연수
장소 :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 ▲ 8월9일~17일 : 제6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대회
장소 : 잠실학생체육관
접수마감 : 7월 15일
접수처 및 문의 : 한국중고태권도연맹(562-6597)
- ▲ 8월24일~26일 : 제18회 회장기 전국대학대학대회
장소 : 국기원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대학연맹(539-4746)
- ▲ 8월26일~28일 : 태권도 한마당 '95
장소 : KBS 88체육관
- ▲ 8월2일~6일 : 제2회 하노이 국제태권도대회
장소 : 베트남 하노이
- ▲ 9월18일~23일 : 제4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향태권도대회
장소 : 국군체육부대
부별 : 남녀고등부(신설), 대학부, 일반부, 군
- ▲ 9월14일~29일 : 제85기 사범 및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장소 : 국기원 지도자연수원
- ▲ 9월16일 : 제3차 고단자 승단심사(6~9단)
장소 : 국기원

태권도의 앞날

고 두 현/서울신문 체육부

그게 아마 1971년의 일이었을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전이다.

당시에도 각 경기종목별로 기자단이 있긴했지만 지금처럼 독립성이 강하지 못했으며 대한체육기자단이 모든 체육기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막강한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때 대한체육기자단의 간사는 중앙일보의 이근량씨, 한국일보의 이태영씨 그리고 필자 세사람이었다.

어느날 TBC라디오에서 아침방송 진행을 맡아 인기가 높았던 봉두완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국일보 주미특파원을 지내고 뒷날 국회의원까지 지낸 봉두완씨는 그때 지금은 없어진 동양방송(TBC)의 라디오에서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시사논평으로 한참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나 봉두완입니다. 새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되신 김운용씨가 점심을 함께하면서 뵙고싶다니 시간쯤 내주실쇼”

아마도 김운용회장은 자칫 어색해지기 쉬운 우리들과의 첫 만남에 구변 좋은 봉두완씨가 자리를 함께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당부했던것 같다.

김운용회장과와의 만남은 이렇게해서 이루어졌으나 그때만해도 씨름 태권도 등은 아예 취재대상종목이 되지못했고 따라서 출입기자단 같은 것도 없었다.

73년 5월 WTF(세계태권도연맹)가 창설되고 첫세계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차츰 매스컴은 태권도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필자는 대학태권도연맹의 자문위원을 몇년동안 맡았고 80년에는 당시 미국태권도협회 양동화회장의 주선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인디애나폴리스 뉴욕 마이애미 탐파 워싱턴 애크론 등을 돌며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권도지도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나름대로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던 셈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로이신 이중우관장으로부터 태권도에 관한 근대사에 관해 여러가지 가르침을 받았다.

필자가 현역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동안에 태권도의 세계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80년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치러진 첫번째 월드컵에서 태권도가 치러지는 것을 취재했을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뒤 태권도가 각 대륙단위 선수권대회와 종합체전의 정식종목채택을 거쳐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대열에 끼여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가 동양의 다른 타격기(타擊技) 무도를 제치면서 세계화경쟁의 선두에 나설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무도의 합리적인 스포츠화에 가장 먼저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태권도는 한국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아니라 경기스포츠로서의 태권도다. 안전성에 대한 배려, 알기쉬운 승패, 기타 경기를 성립시키는 갖가지 요소를 지금의 태권도는 모두 갖추고 있다”(일본의 「격투기통신」 88년 12월호).

“아마도 한국인이 낳은 문화 가운데 태권도처럼 세계적으로 보급된 문화는 없을 것이다.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이조의 도자기나 현대의 자동차보다도 어쩌면 김치나 갈비보다도 온세계에 널리 퍼져 침투한 것이 태권도다. 예컨대 격투기연구가 많은 미국에서도 무도체육관의 70%는 태권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일본의 스포츠전문잡지 「스포츠그래픽넘버」의 88서울올림픽 특집호).

지구가족으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동양의 타격

기로 받아들여지도록 태권도를 스포츠화한 것이 세계화달성의 길을 열어놓았다고는 하나 단 20년 남짓사이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다음 두가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과 함께 전쟁터로 건너간 태권도가 다른 나라 군대들에게 실전무도로 소개되어 큰 관심을 모으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월남전이후 많은 태권도지도자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또 구서독에 광부로 건너간 사람들 가운데에도 태권도지도자들이 적지않게 끼어있어 광부로서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귀국하지 않고 세계각국을 돌아다니며 태권도 체육관을 연 사람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남미를 향한 이민붐을 타고 많은 태권도지도자들이 남북미대륙으로 건너가 태권도 보급에 힘썼다.

또하나는 외국어 구사능력과 외교적수완이 뛰어나 비올림픽경기종목이었던 태권도에 몸담고 있었으면서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의 자리에 오른 김운용 WTF총재가 각국올림픽위원회(NOC), 각 대표의 스포츠통합체 등을 설득해서 선수권대회창설과 대륙단위 종합체전의 정식종목으로 태권도를 채택하도록 만든 것은 태권도세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까지 채택된 태권도가 앞으로 지향해야될 길은 어떤 것일까?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열리는 올림픽의 조직위원회들이 그때마다 태권도를 선택해주어야만 한다. 육상이나 수영 등의 기본종목은 조직위원회가 빼버릴 수 없지만 유도 복싱 태권도 등은 조직위원회가 외면하면 그 올림픽에서는 빠지게 된다.

조직위원회가 종목을 선정할 때 그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막대한 방영권료를 지불해서 올림픽을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하고 있는 TV방송국이다.

태권도는 호구의 착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전자심판기의 등장으로 판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컬러 도복 착용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라져있는 유도와는 달리 일찍부터 호구의 결

려화로 TV쪽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다만 팬들과 TV의 관심을 보다 끌기 위해 경기규칙과 장비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진다”(김운용 WTF총재).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경기기술의 부단한 개발과 아울러 태권도철학의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태권도 철학이야말로 태권도를 세계속에 보다 깊이 뿌리내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민정호 UC버클리 교수·초대 미국태권도협회 회장).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선생님의 말씀도 잘 안듣는 청소년들이 늘고있다. 아직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사람은 신부나 목사 등의 성직자와 무도사범뿐이다. 태권도 지도자들에게도 경기 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인간교육을 기대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영숙·재미여성태권도지도자).

온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수련을 통해 전인(全人)교육이 베풀어질때 태권도의 세계화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김운용이라는 거목을 사령탑에 앉힌 WTF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올림픽정식종목채택까지 실현시켰으나 김운용총재의 뒤를 이을만한 후계자가 뚜렷이 떠오르지않고 있는 점을 염려하는 태권도인들도 적지는 않다.

하루빨리 많은 태권도인들의 지지를 받는 후계자가 우리나라사람 가운데서 성장해주었으면 좋겠다. **EN24**

고두현/ 1935년에 태어나 1958년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졸업했다.

1960년 서울신문사에 입사, 체육부 차장, 주간스포츠 부장, 편집위원(부국장급), 체육부장(국장급)을 역임했다. 26년간 체육부에 몸담으며 체육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린 고두현기자는 1995년 6월에 정년퇴직, 현장에서 은퇴했다. 저서로는 <스포츠의 영웅들>, <고두현의 스포어카드>, <한국의 올림픽 출전사>, <반역의 레슬러 역도산> 등이 있다.



한국대표선수단 코치

2천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기념 대회 한국, 금2 은1 동1로 터키와 공동우승

김범수/한국대표선수단 코치
성균관대 태권도부 감독

한국대표선수단

단장 : 홍종수(대한 태권도협회 부회장)
코치 : 김범수(성균관대학교 감독)
선수 : 김현용(경기도협회 : 58kg급 1위)
안용준(리라공고 : 80kg급 1위)
박정희(춘천군청 : 57kg급 3위)
임병은(용인대학교 : 67kg이상급 2위)

이번 대회는 다른 국제대회와는 의미가 달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경기 방식으로 치루어졌다. 1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5월 7일 이태리 로마 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남녀 2체급에 출전하여 금2, 은1, 동1로 터키와 공동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경기방식

경기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채택 예정체급인 남녀 각각 4체급씩으로

남자 -58kg, -68kg, -80kg, +80kg

여자 -49kg, -57kg, -67kg, +67kg 경기가 펼쳐졌다.

심판진은 감독관 1, 주심 1, 부심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3분 3회전으로 경기를 하였으며 체계는 시합 하루 전날 오후에 실시하였다.

각국 선수단 숙소도 호텔이 아닌 이태리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하여 같이 생활하였다.

경기분석

우리 한국선수단은 남자 -58kg(김현용), -80kg(안용준), 여자 -57kg(박정희), +67kg(임병은)에 출전하여 선수 전원이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선전을 펼쳤으나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 보다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기중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득점 위주보다 먼저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싶었다.

-58kg에 출전한 김현용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이번 대회에서 이태리 관중 및 각국 선수들로부터 제일 많은 박수를 받았다. 모든 경기를 7:2 정도로 이김으로써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결승전 상대였던 터어키의 AHMET EVC-IMEM 선수나 2차전 상대였던 덴마크의 Salin Josef 같은 선수는 81년부터 국제 대회 -54kg(플라이)급에 수차례 출전한 선수라 노련한 경기운동을 펼쳐 만만치 않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득점을 올리며 승리로 장식했다.

순위	국 명	금	은	동
1	한 국	2	1	1
1	터어키	2	1	1
3	이태리	2	1	
4	오스트리아	2		
5	호 주		2	2
6	크로아티아		1	3
6	핀란드		1	3
8	그리스		1	1
9	독 일			2
9	덴마크			2
10	헝가리			1

-80kg에 출전한 안용준 선수는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하였지만 선배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하는 모습이 무척 건실해 보였다. 안선수는 이번 시합 중 음식이 맞지를 않아서 고생을 했다. 안 선수는 1차전에서 그리스 선수를 4:1로 무난히 이겼지만 좀더 패기가 있었으면 더 좋은 경기를 보였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차전에서 터어키의 UGUR YILMAZ를 앞돌려차기와 뒷차기 공격으로 3:1로 이기고 3차전에 주최국 이태리선수와 치열한 접전 끝에 3:2로 승리하여 국제대회 첫 출전에 금메달을 차지 하였다. 안용준 선수는 고등학생으로 이번 이태리 국제대회가 큰 경험과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68kg에는 한국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태리의 DALISE 선수는 모든 경기를 자신 만만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이태리에 저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태권도가 인기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57kg에 출전한 박정희 선수는 1차전에서 덴마크의 Larsen Anyn 선수에게 앞돌려차기와 뒷차기로 5:1로 1차전 경기를 마쳤으나 2차전에서 터어키 Deliktas 선수에게 2:1로 패함으로써 동메달에 머물렀다.

+67kg에 출전한 임병은 선수는 1차전에서 그리스 Themeliou Ageli 선수를 얼굴차기로 2점을 먼저 선취하였지만 3회전에서 앞돌려차기로 1점을 내주면서 홍점계 2:1로 1차전을 승리하였다. 2차전에 크로아티아의 Gaveelva 선수를 4:1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에서 터어키의 Tugen Gedik 선수와 1회전에 2:0으로 리드하다가 2회전에 2:2 동점에서 3회전에 서로 주고 받는 앞돌려차기로 접전 끝에 7:7로 경기를 마무리 하였으나 Tugen Gedik 선수에게 우세패, 임병은 선수는 첫 국제대회 출전에서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터어키의 뛰어난 경기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한국 선수들이 득점위주보다는 적극적인 시합 방법으로 경기운동을 하였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태권**



2천년 올림픽의 주역으로 성장할 꿈나무들 대거 발굴

한규인/ 대한태권도협회 기록분과위원장

대전광역시 외곽 공기맑고 한적한 신탄진국민 학교에 신축한 체육관에서 1995년 5월 26일 16시 대표자회의를 필두로 대전태권도협회에서 배풍 환영만찬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태권도부 소년체전이 시작되었다.

올 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때 대학 2~3학년생으로 호주 시드니 올림픽대회의 주역이 될 연령층으로서 각시도 선수단의 기대와 열기가 어느 대회보다 높은듯 보였다.

경기 첫날(5월 27일)

핀급/전북(박성철) : 부산(황원영)의 경기로 소체의 포문을 열고 부산이 2:1로 승리.

3번째임 전남(한해진) : 강원(고석화)의 경기는 선취득점한 강원선수가 3회들어서 점수관리 차원에서 소극전법을 쓰다가 역전패당하고 말았다.

플라이급/14번째임 충북(김종성) : 강원(김남형)의 경기에서는 상대적이라기는 하지만 충북선수 못하는 발기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량뛰어나 3회 6:1 RSC승.

밴텀급/16번 서울(최성호) : 전북(이영석), 17번 제주(박태열) : 경북(배준용) 등은 1회~2회까지 확실하게 이겨놓고 점수관리하는 듯 소극전에 경북과 전북이 역전패당하는 안쓰러운 모습이었다.

경량급에서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체력이 떨어져서일까, 선취득점한 선수의 태만에서일까? 아니면 코치의 작전에 이상일까를 생각해 본다.

라이트급 /광주(선영준) : 서울(최원석)의 경기는 7득점을 광주가 뽑아내며 강호 서울을 7:2로 제쳤다.

L웰터급 /36번 경기 서울(권이안) : 경북(정지훈)의 경기는 경기중 득점이 어땠는지 보여 주듯 깨끗한 경기매너로 6:4로 서울이 판정승.

웰터급 /48번게임 강원(이덕희) : 충남(이광일)의 경기는 5:9로 총 14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충남(이광일)선수가 판정승.

라이트 미들급 /53번경기 충북(민병기) : 전남(정훈)의 경기는 매회마다 득점을 주고 받는 용호상박의 대등한 경기로 심판의 판정에 신경을 양측이 곤두세웠으나 전남의 우세승으로 판가를 났다.

미들급 /58번경기 광주(정종배) : 전북(한철희)의 경기는 1회 1:1, 2회 0:0, 3회 3:3으로 경기 초반부터 신경전으로 감점을 하나씩 주고 받는 등 바람직한 경기 내용이 아니었고 판정이 광주의 우세승으로 나자 연패를 당하는 전북입장에서 기분이 상한 듯 잠깐의 항의가 있었다.

63번 경복(이길호) : 경기(홍춘식)의 경기는 기량의 차이가 심해 1회 0:3, 2회 0:3으로 진행됐고, 3회들어서는 주심이 경기전수의 손을 들어 RSC승을 선언하며 제1일 경기를 마감했다.

경기 둘째날(5월 28일)

L해비급 /64번 경기(기모강수) : 충북(이창녕)의 대전으로 시작 2:3으로 충북이 판정승.

해비급 /77번게임 대구(현재호) : 부산(안태경)의 대전은 대구가 2점의 감점을 받으며 감점패했고 부산의 안태경의 경기력이 돋보였다.

78번 편급 준준결승전은 주축측이라 부전승으로 올라온 대전(노민수)선수 홈그라운드인 위세로 부산(황원영)을 2:2 우세로 제치며 준결에 선착하였고 전남이 대구를, 광주가 제주를, 경기가 인천을 각각 물리쳐 대전 : 전남, 광주 : 경기로 4강이 압축되었다.

플라이급 /82번에서도 대전(정우대)이 부산(허



체급별 우승자들

용운)을 3:0 판정승으로 이기고 4강에 들어섰고 83번 광주(문병욱)은 막강한 서울(안성철)을 3:0으로 판정승. 전북(임두일)이 인천(김철호)을, 충북(김종성)이 경북(박성우)을 각각 판정승으로 제압, 대전 : 광주, 충북 : 전북으로 4강이 확정.

밴텀급 /86번 경기에서는 대전(이종환)이 광주(전창일)에게 감점패 당해 3체급 연속 4강 진출에 제동이 걸렸고 87번 서울(최성호) : 제주(박태열)의 대전은 2회전 모두 득점없이 우세주고 받았고 3회전도 득점없이 우세판정이 내려져야 할 단계에 이르러 모든 관중의 시선이 감독관석에 쏠렸다. 감독관이 심판원을 불러모아 협의, 제주의 우세승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이원재) : 대구(서유창)의 경기도 경기의 우세승, 전남(최승호) : 충북(최길환)의 경기는 2:0으로 전남이 판정승. 광주 : 제주, 경기 : 전남으로 4강이 확정되었다.

페더급 /90번 대전(이희찬) : 전북(김도영)의 대전은 1회 0:0으로 탐색전, 2회전에 전북의 김도영선수가 뒤로 물러서면서 받아차고 연속 뒤후리기로 2득점을 올려 한쪽의 그림같이 잘한다는 감채를 받으며 1:3으로 승리를 이끄는 듯 했으나 3회 태만하는 중 대전 이희찬 선수가 돌려차기, 뒷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밀어붙이기 작전이 주효해 4득점을 내주며 역전패 당하고 말았다.

전북 코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선수를 위로 하거나 보호할 생각은 한치도 없었고 시험에 진 선수가 축 처진 모습으로 바구니를 챙겨 들고 코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은 아름답게만 보일 않았다. 라이트급 /94번 경기는 부전승으로 올라온 대전(김정기)선수가 충북(이주영)을 8:1로 이기며 3회 RSC승.

95번 전북(박기정) : 광주(선영준)의 대전은 1회전 1:1로 호각세를 이루다 2회전 0:1, 3회초 0:2로 점수를 빼앗기자 전북코치 경기도중 수건을 던지고 코치석을 떠나고 선수는 수건 던진줄도 모르고 경기를 하다가 주심의 싸인으로 기권을 알고 멀리간 코치를 쳐다보며 바구니 들고 안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은 예의를 강조하는 태권도 경기장에서는 다시 있어서는 아니될 모습이었다.

라이트급에서는 대전 : 광주 제주 : 전남이 4강에 진출하였다.

L월터급 /98번 경북의 정지훈을 쉽게는 아니나 깨끗한 득점으로 6 : 4로 판정승한 서울의 권이안 선수는 홈그라운드 대전의 손영준을 맞아 1회 1 : 3, 2회 1 : 3, 3회초에 연속 2득점을 뽑아내 2 : 8로 RSC승을 거두며 4강에 선착했다.

웰터급 /대전(박순웅)이 경기(남영식)를 2회 KO승을 거두며 4강에 진입했다.

L미들급 /부전승으로 올라온 대전(박기돈)은 경기(김정호)를 맞아 1 : 1로 3회전을 마치는 듯 하여 우세판정으로 가보다라고 생각하던 중 경기종료 2초전에 돌려차기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되어 2 : 1로 신승.

미들급 /서울(김준식)이 대전(김태형)을, 강원(홍준식)이 대구(곽영민)를 5 : 3판정승으로 이기고 4강에 진입했다.

L헤비급 /충북(이창녕)이 대전(이원영)을, 광주(최준철)가 전남(김덕중)에게 판정승, 인천(이재선)이 강원(심규순)을 2회 7 : 2라는 많은 점수를 뽑으며 2회 RSC승. 부산(안태경)이 전북(유영현)선수를 3 : 1로 판정승하며 4강에 진입, 충북 : 광주, 인천 : 부산으로 압축되었다.

헤비급 /대전은 중량급선수들이 열세인듯 강원

(최승용)에게 1 : 2로 판정패하며 탈락. 광주(오세종)는 경기(송용훈)를 맞아 두선수 적극적인 공격으로 득점 주고받아 1회 3 : 2, 2회 50초경 경기선수가 1득점 뽑아 3 : 3으로 팽팽하게 3회전을 맞았으나 3회전부터 급격히 체력이 빠진듯 체력이 우세하고 정신력(강이세다할까)이 우세한 광주선수가 밀어붙여 4 : 5로 광주가 승리.

경기 마지막날

핀급결승전은 대전의 오민수선수를 5 : 1판정승으로 물리친 전남의 한해진선수와 광주의 한서용선수를 3 : 1로 이기고 올라온 경기의 박성규선수와 대전이었다. 한해진 선수는 1~2회전에 득점하지 못하고 3회중반 신장의 열세를 딛고 기습공격을 감행한 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어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플라이급 대전의 정우대전수는 전북의 임두일 선수를 맞아 얼굴공격 등으로 득점을 얻었으나 3 : 4로 임두일 선수에게 역습을 당하며 패배, 전북에 금메달을 내주었다.

밴텀급 제주의 박태열선수는 광주의 전창일 선수를 5 : 3의 판정승으로 큰고개를 넘었고 경기의 이원재선수도 전남(최승호)이라는 큰 고지를 3 : 2로 어렵게 넘고서 결승에 진출, 제주의 박태일과의 접전에서 아깝게 1 : 1우세를 빼앗겨 제주에 금메달을 넘겨주었다.

페더급결승은 대전의 이희찬선수를 1 : 4로 제치고 결승에 오른 서울 박종화는 경기의 하승일을 2 : 4로 제치고 올라온 광주의 김진모선수를 맞아 5득점을 내주고 3득점을 빼앗아 5 : 3으로 광주의 김진모선수에게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 만난 광주의 선영준 선수와 대전의 김정기선수는 호적수였다. 1회 0 : 3, 2회 1 : 1로 1 : 4로 3회전을 맞은 광주 선영준 선수는 3회에서 연속 4득점으로 역전 되었으나 경기종료 30초를 남기고 대전 김정기 선수가 다시 2득점을 얻어 6 : 5로 대전이 어렵게 결승에 진출하였는데 광주측에서는 약간의 어필이 있었을 정도로 경기가 호각세를 이루었다.

한편 제주의 박정민선수를 2 : 0으로 물리친 강

팀 전남의 이승훈과 어렵게 광주를 제치고 올라온 대전의 김정기 선수의 결승전은 이승훈이 발빠른 몸놀림으로 상단공격을 교묘히 피하면서 매회 1점씩 빼앗으며 3:0으로 완승하며 전남에 두번째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L웰터급 충북의 신영재선수를 1:3으로 판정승한 서울의 권이안선수가 결승에 선착했고 전북의 박민호선수를 0:3으로 이긴 경기의 이택균선수가 결승에 진출. 권이안선수는 매회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며 1득점씩을 얻으며 3:0으로 완승, 서울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웰터급 준준결을 K·O로 장식하며 준결에서도 6:3으로 강팀 전남(이세주)을 제친 대전의 박순웅선수는 결승에서 충남의 이광일 선수를 맞아 분전하였으나 3:4로 패배.

대전팀은 예상을 뒤엎고 결승에 4체급이 진출하는 패거리를 보였으나 애석하게도 모두 은메달에 머무는 아쉬움을 남겼다.

L-미들급 준결승에서 강팀 서울을 7:5로 판정승한 대전의 박기돈선수는 결승에서 부산의 하형훈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오른 인천의 오선택선수에게 1:4로 판정패.

미들급 경기의 흥춘식선수는 서울의 김준식선수를 맞아 1회 3:3 2회 4:2로 서울의 김준식선수가 역전시켰으나 3회 맹반격을 감행하는 경기 흥춘식선수의 공격을 제하지 못하고 3점을 실점 당하여 7:8로 경기도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L헤비급 강팀 광주의 최준철선수는 충북(이창녕)선수를 5:1로 크게 이기고 결승에 안착. 부산의 안태경선수는 인천(이재신)선수를 2:1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광주의 최준철선수를 맞아서 2:1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헤비급/광주의 오세종선수를 5:8로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강원도의 최승용선수.

서울의 권현우를 4:4무세로 어렵게 이기고 올라온 부산의 김권중선수는 결승에서 강원도의 최승용선수를 맞아 긴리치를 살리지 못하고 혼전중 실점 3:4으로 판정패 당해 강원도에 최충량급 금메달을 선사하며 부산은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번 소년체전의 최우수선수상은 뛰어난 경기

력을 보여준 서울 권이안(L웰터급) 선수가 차지했다.

대회 총평

각 시도 대표들의 경기력이 어느 대회보다도 뛰어나다고 본다. 오는 2천년 올림픽의 주역으로 성장할 꿈나무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발돋움된 것은 이번 대회의 큰 성과라고 본다.

한편 경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① 선수들의 발이 목이나 머리에 걸치기만해도 얼굴독점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고 득점을 올리고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듯한 선수들이 많이 보였다.

② 태권도는 경기 시작에서부터 마치고 나갈때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도장에서 수련을 할 때에는 예의범절이 뛰어난데 경기장에서는 형식만 겨우 이루어질 뿐 선수와 선수간, 지도자와 선수간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서 선수끼리만 인사를 시키는 것을 선수, 코치가 같이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여 파인플레이를 다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시합이 끝나 승패선언을 내리기 전에 선수가 상대방 코치에게 인사를 하도록 의식화하고, 양선수가 인사할때도 코치가 서로 인사하고, 주심이 선수의 손을 들어주어(복싱경기처럼) 승패를 가리지 말고 이긴쪽의 손을 들어(씨름처럼) 승패를 가름함이 좋지 않을까?

(국민학교의 어린선수나 핀플라이급의 작은 선수의 손을 어깨가 빠져라라고 손을 드는 모습이나 미들급이상의 큰 선수의 손을 들어 올리는 키 작은 심판의 모습도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전광판에 승패가 가름되니까 굳이 맘홀리고 지친 선수에게 두선수의 손을 잡는 번거로움은 피해도 될듯하다)

셋째, 경기장에서는 선수가 주인이 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다. 경기의 승패에 관계없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코치가 챙기고 보조하는 모습이 되도록 모든 지도자는 노력하여야 하겠다.

6개국 대사님들이 손수 개최한

제3회 대사컵 외국인 대회

김 영 선/제3회 대사컵 태권도 대회 경기위원장



외국인학교 여학생들과 주한미군 자녀들, 인도 어린이가 품새를 뽐내고 있다.

5월 27일 국기원에서 개최

여섯살 남짓한 노랑머리 아이가 자기 또래와 겨루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아픈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다. 심판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아이를 달래기에 급급했다. 한 인도 아이는 자기 체급에 비해 키가 너무 커서 상대측 항의를 받고 체중을 확인하는 부산을 떨었다. 겨루기 경기에서 서른 살이 넘는 알바니아 국적의 외교관이 흰 띠를 맨 채 온 힘을 쏟아 발차기를 시도했다. 짧은 머리의 육중한 체구의 주한 미군들이 경기에 앞서 구석에서 사뭇 긴장한 채 몸을 풀고 있었다. 한 여자 선수는 품새와 겨루기 두 부문 1위였다 MVP 상까지 석권하고는 트로피와 함께 코

코아 한 박스와 스위스 패션시계를 부상으로 받고는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국기원 경기장 출입구에는 점심 식사로 햄버그와 샌드위치를 파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의 간이식당이 있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주재 대사님 무려 여섯 분이 시상식에서 60여명이나 되는 입상자들의 목에 일일이 메달을 걸어주었다. 해외항공권 및 호텔식사권 등 20여 품목의 경품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관중석 여기저기서 환호를 올렸다. 여느 대회와는 색다른 이같은 광경이 지난 5월 27일 국기원에서 거행된 제 3회 대사컵 외국인 태권도대회에서 연출되었다.

대사컵 대회의 시작은 태권도를 몸소 사랑해 온

외국인 저명인사 두 분의 합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년 전 초겨울날 주한 스위스 대사 페첸린씨(Mr. Fetscherin)와 서울외국인학교(Seoul Foreign School)의 교장선생님이셨던 릭터박사님(Dr. Richter)이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어린아와 남녀 성인 태권도 수련자들을 모아 시합을 하던 어떨까 하고 의논을 하였다. 이 두 분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태권도에 대해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또한 한국의 문화 발전에도 이 행사가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사 개최를 구체적으로 도모하였다. 페첸린대사님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다른 5개국 대사님(오스트리아, 영국, 싱가포르, 호주, 쿠웨이트 등) 등을 조직위원으로 선임하여 대회 재정과 운영 전반을 담당해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도 이 대회에 관심을 보여 홍보부장 김 호씨를 파견하여 대회 업무를 지원하였다. 경기 운영은 릭터 박사님과 서울 외국인학교 사범 황인구씨가 맡았다.

마침내 1993년 12월 4일 서울외국인학교 체육관에서 제 1회 대회가 열렸다. 첫 대회라 그런지 참가 인원은 80 여명에 불과했다. 6개월 후인 1994년 6월 4일 같은 장소에서 2회 대회를 강행했다. 이번에는 11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대회는 제법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다시 1년만인 1995년 5월 27일날 장소를 국기원으로 옮겨 제 3회 대회를 치루게 되었다. 12개 도장으로부터 209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대회 규모가 한층 커졌다. 금번 대회에는 강남의 리즈칼튼 호텔의 총지배인인 미국인 존 칸웨이씨(Mr. Conway)가 가세했다. 칸웨이씨는 5개월전 한국으로 부임하자마자 태권도를 시작했기에 개인적 관심이 작용하여 대회장을 맡아 사비(私費)를 쓰면서까지 헌신적인 활동을 했다.

대사컵 대회는 앞으로 연례 정기 행사로 계속 주최될 예정이다. 이로써 7년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던 외국인대회가 폐지된 이래 명실상부한 주한 외국인대회가 부활된 것이다. 그것도 외국인대사님의 사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기에 더욱 값어치가 크다.

이 대회의 공식 명칭은 “Ambassadors’ Cup Taekwondo Competition (약칭 A. C. T. C)”

이다. 대회의 취지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한국내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태권도 수련자들간의 인간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적 측면에서는 참가 선수는 실력 수준과 승패를 떠나 태권도정신과 아마추어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시합에 임함으로써 태권도적 체험을 쌓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 태권도수련자 209명 참가

이번 3회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구성은 미국군 자녀와 미국 군인이 많았고 그 외에도 외국인 상사 직원이나 외교관, 어학원 강사 등 한국 주재 외국인 직장인들과 자녀 그리고 유학생 등이었다. 선수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으나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총 15개국에 달했다. 판정은 서울시협회 소속 심판위원들이 수고해 주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도 개최식 시범단을 파견하는 등 국기원과 함께 여러 업무를 도와주었다. 대회 진행은 연세 국제태권도클럽 학생들이 담당했다.

이번 대회의 품새 경기에서는 각 부별로 편성된 총 14개의 금메달이 배정되었다. 품새 그룹당 선수 인원수는 15명 내외가 되었다. 겨루기는 나이, 단, 급수, 성별(성인부의 경우만), 체급에 따라 33개 그룹이 편성되어 각 부당 3~11명의 선수가 배정되어 금메달을 따기가 수월했다. 경기는 오전 8시 30분 아동부 품새부터 속개되었다. 참가 선수들은 대부분 그 기량이 뛰어나지는 못했으나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태도는 본받을 만했다. 단체우승의 영광은 총 9개의 금메달을 딴 삼록체육관(사범 장성동)에게 돌아갔다. 선수 42명을 대거 출전시킨 동두천 미2사단 도장(사범 김문옥)은 최다 선수 참가상패를 받았다. 통합 부문 MVP 수상자는 6명은 다음과 같다.

- ✱ 품새 부문 : 아동부 Lisa Spangler (U. S. A. Midong)
- 성인여자부 Jane Park (U. S. A. Yonsei)
- 성인남자부 David Lovejoy (U. S. A. 2nd I. D)

✱ 겨루기부문 : 아동부 Peter Watts (U. S. A. Humphrly)
 성인여자부 Bokri Park (Japan, Dongsam)
 성인남자부 Todd Huddleston (U. S. A. Yonsei)

대회운영 및 앞으로의 개선점

대회를 주최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대회 당일 경기 진행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기 진행이 한동안 차질을 빚었다. 다행히 담당 사범님들의 도움으로 예정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의 시행 착오를 토대로 하여 내년에는 경기운영법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회 전에 사범들이 모여 대회 운영에 관해 충분한 의논도 있을 예정이다. 대회 재정 면에서도 그다지 풍족한 편이 못된다. 조직위원들이 개인적 헌금과 참가비만으로 경비를 조달하는 실정이라 대회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상·재정상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대사립태권도조직위원회 (A. C. T. C Committee)의 임원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대회는 별도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더불어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심판을 파견하는 등 측면에서 지원한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주한 외국인 대회가 되었으며 한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교포에 한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실력 수준이나 성별, 나이 제한이 없다. 단 국내 일반 도장의 아마추어 수련자에 한해서만 출전을 허용하며 국가대표급 선수는 제한하고 있다. 개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록된 도장을 통해서만 단체 접수를 받는다. 경기 종목은 품새와 겨루기 두 부문이다. 선수 구분은 15세 이하의 아동부 (남녀 구분 없음)와 16세 이상 성인 남자부, 그리고 성인 여자부 등 세 그룹으로 나뉜다. 이상의 총 6개 부문에서 M, V, P가 설정되어 트로피를 수상한다. 6개 부문에서 다시 단, 급수와 체급에 따라 세부 그룹으로 편성된다.

겨루기 체급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대회부터는 계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대회의 선수 참가 상황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회 운영상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총 선수 인원수 250명 선에서 그리고 한 도장당 출전자 수도 50명 선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방문 외국인팀 참가 사항 역시 내년부터는 신중히 검토하여 제한할 방침이다.

기타 대회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필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 372-0835, 361-4511 Fax 372-0836

끝으로 이 대회가 무난히 끝나기까지 여러 일꾼들의 노고가 컸다. 세계연맹의 김 호부장님과 재정 총무였던 에리카씨 (Mrs. Erica Linthorst) 그리고 경기진행을 맡아준 론씨 (Mr. Ron Dziwenka), 양성호씨에게 감사드린다. **태권도**

◎ 체급 구분

<unit : kg>

Category Weight	Male & Female Youth	Female Adult	Male Adult
Super Fin	not exceeding 22	—	—
Mini Fin	22~26	—	—
Fin 핀	26~30	—	—
Fly 플라이	30~35	not exceeding 47	not exceeding 54
Feather 페더	35~40	47~55	54~64
Welter 웰터	40~45	55~65	64~76
Heavy 헤비	over 45 kg	over 65 kg	over 76 kg

학술강연회 개최 및 많은 동아리팀들의 참가로 활성화된 대회 분위기

지병윤/ 한국대학연맹 사무국장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제22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를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 남상해대학연맹회장은 세계무대를 이끌어갈 지성인으로 경기의 과학화와 더불어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을 정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시범단의 축하시범과 함께 첫째날 경기가 진행되었다.

첫날 경기중 밴텀급의 정충민(한국체대)선수와 최재훈(동아대)선수의 경기에서는 1회전에서 정충민선수의 원발앞돌려차기가 득점으로 연결 이어 2회전에서도 원발앞돌려차기로 득점 추가. 최재훈선수가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했으나 실점을 만회하는데 역부족으로 정충민선수가 2:0판정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예정된 경기시간보다 조금 일찍 경기를 마무리하고 대학연맹에서 주최한 학술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형버스 3대로 분승하여 강연회장인 하림각으로 향했다.

100여명의 태권도지도자 및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강사로 초청된 한림대학교 정보모총장의 「스포츠와 영재교육」이란 주제의 특별강연회가 있었다.

많은 태권도인은 대학연맹의 새로운 시도에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이어서 서명원, 정보모 두분의 전임회장에게 대학연맹 고문추대패를 전달하고 만찬을 통하여 서로의 친교와 우위를 다지고 첫날행사를 마쳤다.

둘째날 여대부비틀급 박은순(경희대)선수와 양준희(용인대)선수의 경기에서 박은선선수가

1회전 2회전 연속 일점씩 추가하는 시종 우수한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3회전에서 양준희선수가 뒤차기로 1점만회 성공했으나 박은선선수의 반격에 밀려 결국 3:1의 판정으로 박은선선수가 승리하여 4강에 진출했다.

둘째날 경기는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이르는 긴시간동안 TV생중계가 되어서로 우승을 자부하는 각 대학의 응원전이 펼쳐져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셋째날경기

올해 신생팀으로 출전한 마천국(동신대)선수와 김병태(용인대)선수의 경기는 김병태선수가 시종 여유있는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마천국선수가 실점만회를 위한 계속 공격이 있었으나 김병태선수가 2:0으로 판정승했으며 김병태선수는 준결승전에서 같은 대학선수를 가볍게 물리치고 결승전에서도 우수한 기량으로 상대선수를 제압하는 멋진경기를 펼쳤다.

또한 여대부 밴텀급 결승전에서는 원선진(경희대)선수와 김병희(용인대)선수가 우승을 놓고 한 판 격돌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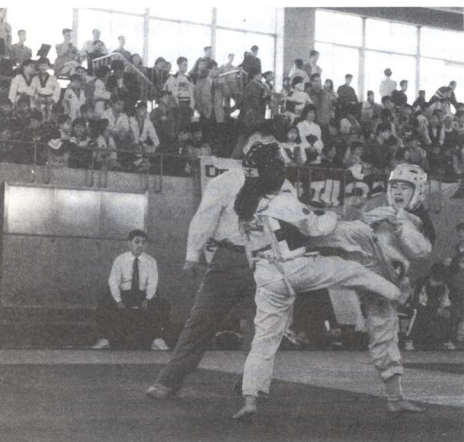
1회전에서 원선진선수의 앞돌려차기와 뒷차기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나 2회전에서 원선진 선수의 선제공격이 득점으로 연결, 3회전에서 오른발돌려차기 반격시기도 1득점 추가하는 등 한수 위의 기량으로 김병희선수를 제압하고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학술강연회 개최와 B조 동아리팀의 참가로 많이 활성화된 분위기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태권**

강원강릉국, 안양석수국 종합우승

엄동록·김미지 남녀 태권왕으로 선발

유용석/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사무국장



하늘도 땅도 푸르른 어린이달인 오월에 제16회 어린이 태권왕 뽑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를 전국 118개 학교가 참가하고 1295명이 출전하여, 명실공이 우리꿈나무 선수들은 태권도 종주국의 주인공으로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회식에서 대회장인 (주)신원상사 이시우 대

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런 무예인 태권도가 세계방방곡곡에서 한국말 구령에 따라 태권도를 익히고 있는 만큼 세계 어린이보다 뛰어난 정신과 기술로써 종주국의 어린이답게 정정당당하게 겨뤄줄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최재무사범이 지도한 신도립국교의 태권도 격파시범과 엄경범사범이 지도한 안양 부림 국교의 태권로빅시범은 이번대회에 자리한 선수, 임원, 관중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어린선수들이 패기있는 다양한 기술에 의한 공격력을 발휘하여 전년도보다, 고른 실력을 보여준 대회라고 본다.

첫날, 플라이급에 출전한 강릉 교동 국교의 고승우선수는 인천 삼산 국교의 임종규 선수를 맞아 1회전은 우세로 2회전은 돌려차기와 나래차기로 상대의 몸통부위를 가격하여 2점을 뽑아내어 첫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여자부 핀급에 출전한 경기 신산국교의 김혜숙선수는 성남국교 정미선 선수를 맞아 1회전에 앞돌려차기 얼굴공격과 몸통공격이 유효하여 3점을, 2회전에 1점, 3회전에서 돌려차기로 얼굴을 공격 2점을 가산하면서 승리를 차지했다.

이틀째 경기는 결승전으로 대접전을 펼쳐 손에 땀을 쥐게했는데 L-웰터급에 출전한 강릉 교동국교의 엄동록선수는 다양한 태권도 기술을 발휘하면서 예선전을 K.O와 3~4점 이상의 점수를 따내면서 결승에 진출, 경기 신흥국교의 최호성선수를 맞아 1회전에 우세로써 상대방에게 뒤지지는 않았는데 2회전서 몸통돌려차기로 1점을, 3회전엔 몸통공격을 허용 1점을 주고는 다시근질긴 공격으로 1점을 따내고 우세를 따내어 2대1로 승리 이번 대회의 어린이 태권왕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여자부 웰터급에 출전한 안양석수국교의 김미지 선수는 여자선수로는 보기드문 힘과 기술로써 예선을 통과 결승전서 경기광릉국교의 방정민 선수를 맞아 1회전에 몸통돌려차기로 1점을 따내고 2회전엔 우세 3회전엔 1점씩 주고 받는 접전끝에 2대1로 승리하여 팀의 우승과 어린이 태권여왕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태권**

제2과

“그림으로 보는 <태권도의 발자취>”

김영선/대한태권도협회 홍보분과 부위원장

● 한국의 태권이 세계의 태권이 된다.

한민족의 기백이 넘치는 전통무예 태권도가 올림픽에 채택되어 세계인의 스포츠 경기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까지 태권도는 공산권을 포함한 전세계 144여개국에 보급되어 있으며 유도나 카라테, 중국의 우슈 등의 수련자 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웠던 유명 인사로는 클린턴 미국대통령(2단)과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을 비롯하여 천재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무술영화계의 스타인 이소룡, 척 노리스, 스티븐 시걸 등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한국의 태권도가 지구상 곳곳에 전파되기까지에는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태권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뿌리와 발자취를 찾아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보겠어요.

●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태권도

태권도와 같은 무예는 예로부터 사람이 몸으로 배우고 익혀 전해져 오는 것이라

서 무형문화라고 부릅니다. 무형문화는 금보상이나 보검처럼 물건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몸짓을 통해 표현되는 풍습이나 전통을 말합니

다. 태권도는 이같은 무형문화에 속하여 사람과 사람을 통해 내려오므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변화 받으면서 오늘날의 태권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격투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발달하였지요. 따라서 태권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행해졌던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와 이름으로 존재하였어요. 오래 전에 불렀던 태권도의 다른 이름으로는 수마, 권법, 수벽타, 각희, 태견, 당수 등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 맨손으로 치고 차는 비슷한 종류의 격투 무예를 통합하여 태권도라는 새 이름이 붙여지고 그 경기 방식도 현대에 맞게 고쳐서 국제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우슈나 일본의 가라테 같은 무예를 제치고 당당히 올림픽에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불굴의



▲ 클린턴 미국대통령



▲ 무하마드 알리



▲ 카를로스 스페인국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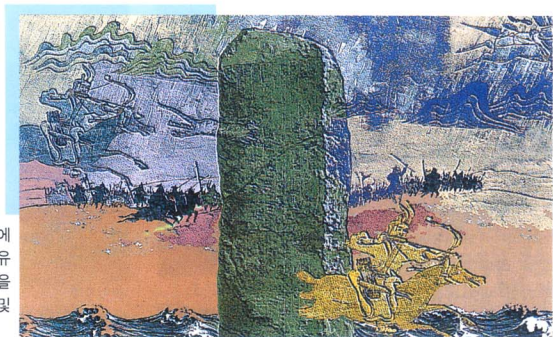
▲ 이소룡

태권도를 했던 사람들. 클린턴, 카를로스 스페인국왕, 무하마드알리, 이소룡, 스티븐시걸. 날렵하고 위력적인 태권도 발차기 기술은 보기에도 시원하여 많은 사람들의 매력을 끌고 있습니다.

◀ 스티븐 시걸



해마다 명절 때면 한양(서울)의 곳곳에서 태권 겨루기가 씨름과 함께 열리곤 했습니다. 태권은 발을 써서 겨루는 격투기이었습니다. 태권의 발기술과 동작 원리가 태권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한산성밖 태권 및 씨름장면 민화)



고구려인의 진취적 기상은 광개토왕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고구려인 특유의 단결력과 무예 실력은 중국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정도였습니다. (광개토왕비문 및 수렵도)

얼이 이 태권도를 통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고 마침내 전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 삼국시대 무사들의 기백을 느꼈던 맨손무예 태권

삼국시대 이전에는 증명 자료가 없어서 무예의 흔적

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태권 같은 맨손격투기는 오래 전 원시시대부터 생존 본능적 격투 수단으로 발생해서 전투 보조 기술로 또는 부족의 제사 행사때 힘 겨루기 시합으로 행해졌다고 추측됩니다.

한반도의 부족국가들이 서로 다투며 통일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삼국 시대는 그야말로 무력의 대결시대였

지요. 당시는 칼, 창을 다루는 무예 기술은 물론 강인한 체력과 용맹성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무예 수준은 당시 일본에까지 전파될 정도로 발달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활약했던 무사 귀족인 고구려의 신배라든지 신라의 화랑의 무예 솜씨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나가 적에게 지면 스스로 자결할 정도였으니 무사의 기백과 무예적 수준이 굉장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무사들은 맨손격투기인 태권(수박)이나 씨름과 같은 힘겨루기 경기를 통해 부족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쌓았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저력은 화랑도의 무예와 정신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산천과 명승고적을 두루 돌아다니며 무예를 연마했던 화랑은 용감한 무인이 되어 전쟁터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삼국시대의 태권의 흔적은 고구려의 벽화에 잘 나타납니다. 맨손 격투무술인 수박은 이미 그 당시부터 붙잡고 넘어뜨리는 시름과 나뉘어져서 행해졌습니다. 수박은 두 사람이 맞붙어 손으로 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겨루기입니다. 손을 쓰지 상대방을 잡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을 피아합니다. 중국 무술의 본산지라는 소림사 권법보다 훨씬 앞서는 시대에 한반도에는 이미 고구려인의 무예 겨루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마을마다 '경당'이라는 공동 건물을 세우고 젊은이들이 글읽기와 병행하여 말타기, 활쏘기 등 체계적인 무예 훈련을



고구려의 맨손무예 수박(태권)은 압록강변의 통구 지방의 무용총 벽화와 평양 근처의 안악고분에도 실물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악 고분벽화의 그림은 잘 알려진 무용총의 그림보다 50년 앞선 357년경에 제작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박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초기까지 전승되었습니다.(안악고분 수박도)



무예도보통지에는 두사람이 마주 서서 손과 발로 겨루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군사훈련의 목적으로 이같은 맨손 무예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무예도보통지 겨루기 장면)

실시했습니다.

● 태권 시합이 고려시대 무신란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1170년경 고려 중기 무렵 터진 무신들의 반란이 태권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당시의 왕인 의종을 호위하던 장수와 군사들이 문신들의 팔세에 격노한 나머지 반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무신 정권을 세운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 계기는 바로 태권시합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에 다섯 명씩 편을 짜서 집단으로 격투 시합을 하는 오병수박회(五兵手搏戲)를 하던 중에 문신들의 조롱을 받던 무신들이 그 길로 칼을 빼서 문신들을 모조리 없애고 정권을 차지하는 대사건이 생겼습니다. 태권은 당시 말로는 수박 또는 수박회라고 불렀는데 왕이 나들이 때마다 관람할 정도로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이의민과 두경승은 태권 고수로서 왕의 총애를 얻어 출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태권은 병사를 선발하는 주요 무예 종목이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이 오병수박회를 본 따서 체급 제한없이 하는 5인 단체전 태권도 시합이 현재에도 열립니다.

● 조선시대의 무예도보통지

조선시대 이전에는 무예 그 자체가 전투 능력이자



세 젊은이가 오늘날의 태권도와 거의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한사람이 몸을 숙구치면서 모뎀발 뛰어 앞차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은 뒷굽이 자세로 손바닥을 얹어서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나무막대기를 든 사람은 앞굽이 서기 자세로 두 사람을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17세기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태권도의 중요한 자료로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KBS 민화 태권도)

전쟁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숭문천무(崇文賤武)의 사상, 즉 머리를 쓰는 학문을 높이 받드는 반면 몸을 쓰는 농사일이나 무예를 비천한 것으로 대하여 무시하는 풍조가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병자호란 같은 큰 화를 당한 후에야 비로서 칼, 창, 활 등 무기술은 물론 태권과 같은 맨손 격투법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맨손무예와 함께 검술과 창술 등 24종의 무술을 망라한 군사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誌)도 이 시기에 발행되었습니다. 무예도보통지는 중국 무에서 등 1백 47종의 서적을 참고하여 선조, 영조, 정조대왕에 이르기까

지 삼 대에 걸쳐 완성한 책입니다. 무예도보통지에는 각 무예의 특징과 무기의 사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명화가인 김홍도의 간단한 삽화가 실려 있습니다. 맨손 격투법인 권법 부분에는 발차기와 주먹지르기 등의 기술을 여러 가지 서기 자세와 엮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겨루는 부분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여 그 당시 조선의 군사 무예의 실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 호신술 수단으로서 태권

태권 같은 무예는 놀이꾼(한량)의 풍류로 행해지

마주서서 발로 상대를 차고 걸어 넘김으로써 승부를 내는 겨루기인 태권을 하는 장면. 조선 시대 말기 경에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로 명절 때마다 행해졌습니다. (『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에 실린 태권 사진)



도 했습니다. 동네마다 힘깨나 쓰고 몸이 날랜 장정들이 있어 주먹과 발길질은 물론 돌팔매질에도 능했습니다. 장정들은 도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태권 같은 호신술을 익혔습니다. 전국 각지에 비싼 물건을 팔러 다니던 보부상 상인들도 도적떼로부터 재산을 지키려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산적이나 도적떼들도 무술을 이용해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행인들을 습격하여 재물을 뺏고 괴롭히는 무예는 잘못된 쓰임새의 예입니다.

● 여성 무예가인 포도청의 다모

태권 같은 무예는 포도청(옛날 경찰서)의 여자 정보원인 다모(茶母)와도 관련되기에 흥미를 끕니다. 다모는 '차 심부름을 하는 여자'이지만 포도청에서 여자 비밀 형사 격이었습니다. 다모의 임무는 조정에 역모를 피하는 일당에 대해 정탐과 수색은 물론 용의자를 체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모는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내전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그 집 종이나 식모를 피어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곤 했습니다. 쇠로 된 방망이 같은 무기와 오랏줄을 치마 속에 숨기고 다니며 죄인을 포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임무 수행상 키가 크고 힘이 센 젊은 여자를 다모로 뽑았습니다. 다모는 쌀 반가마니를 번쩍 들어올리고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들어 마시는 역센 여자였다고 하며 무기를 잘 다루도록 훈련받았고 태권 같은 맨손 무예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 마을의 민속 경기였던 태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울내의 마을에서는 무예를 겨루는 태권 풍속이 생겼습니다. 오월 단오날이면 이웃 동네사람들이 어울려 씨름과 태권을 건주며 즐기곤 했습니다. 태권은 '한 발로 서로 맞은 편 사람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경기'이며 각희(脚戲) 즉 발놀이라고 불렀어요. 서투른 사람은 다리를 차고 잘하는 사람은 어깨를 차고 최고 실력자는 머리 위의 상투를 찰수 있어 태권을 공중을 나르는 발길질 '비각술(飛脚術)'로도 불렀습니다. 태권을 처음 배울 때는 사람을 직접 상대로 하지 않고 나뭇가지에 짚을 매달아 발질을 익혔다고 합니다. 태권 같은 맨손 무예는 무기가 없



우리에게 익숙한 유숙의 대패도의 원본으로 전해지는 신문록의 대패도. 해마다 오월 단오날이면 머리를 땅아 내린 젊은이들이 씨름과 태권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풍속으로 전해집니다. (신문록의 대패도 사진)

을 때 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 보조 능력으로 연마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을 지은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도 젊은 시절 태권을 익혀 길거리에서 싸움판을 벌이곤 했습니다. 조선시대 명인 화가인 신윤복과 유숙(1827~1873)은 씨름과 태권 장면을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의 힘겨루기 경기였던 태권이 조선 후기에는 아이들의 흥겨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태권이 맨손 무술의 한 종목이었다가 겨루기 경기 위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태권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암흑시대에 무예가 명맥을 이어오다

오늘날의 태권도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닌 불굴의 민족적 자력과 무예적 소질이 태권도라는 무예를 통해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민족 저항력을 진작시키는 태권 같은 무예는 금지되는 등 탄압을 받았습니다. 맨ချ(으로 치고, 차고, 겨루는 씨름)하고 박력 있는 무예를 일본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일본인의 배척을 받은 이같은 어려운 시



일제시대 태권의 명인이었던 송덕기 할아버지가 태권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권 뿐 아니라 활쏘기도 하며 풍류를 즐겼던 전형적인 놀이꾼이었습니다. (송덕기옹의 태권 장면)



30년 전의 태권도 겨루기 장면. 머리보호대도 없이 안전 보호대 장비가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 보호대도 대나무로 만들어져서 치면 발등이 아플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대나무 보호대 착용 경기 장면)

대에도 씨름과 활쏘기와 함께 태권은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권을 하였던 송덕기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해방 이후 그 기예가 태권도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의 발기술은 어느 민족보다 발재간이 뛰어난 우리 나라 사람들의 기량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해방 이후 태권도의 다채로운 발차기 기술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 해방 이후 태권도는 비약적인 발달을 이룬다

오늘날처럼 태권도가 기술적·조직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뒤부터입니다. 해방 이후에야 지금의 태권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태권도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 무예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 상대와 직접 겨루는 발차기 위주의 실질적인 격투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군이 참전한 월남전쟁은 태권도의 위력을 다른 나라에 떨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1961년에는 태권도를 총괄하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었지요. 그 후 태권도는 전국체육대회의 경기 종목이 되었고 태권도의 총본부인 국기원이 지어졌습니다. 2년마다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렸고 마침내

태권도는 올림픽에까지 진출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단의 조그만 반도의 태권도는 불과 40~50년 사이에 세계인의 격찬을 받는 무예 경기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 맺는 글

지금까지 수박에서 권뎌, 태권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한민족의 무예적 발자취를 그림과 사진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무예는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면서 오늘날 태권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무예 경기적 전통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지금의 태권도도 완성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태권도의 전반적 기술과 철학, 경기 방식 등은 아직도 많은 면에서 현대인의 성향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태권도가 지닌 한국 무예의 전통과 특색도 유지되어야 하겠지요. 지금보다 나은 태권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장차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태권**

• 다음 호에는 제3과 :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품새에 대해서 게재할 예정입니다.

일석이조 에어컨 활용지혜



예전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아져 에어컨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1987년에는 102만 대 정도였으나 불과 4년 뒤인 1991년에는 225만 대로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의 과다사용은 에너지의 낭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문명의 이기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환경상식

▶ 에어컨 1대의 전기소모량은 선풍기 30대를 켜 놓은 것과 같습니다.

▶ 여름철 실내온도를 1도만 높게 유지해도 약 20%의 전력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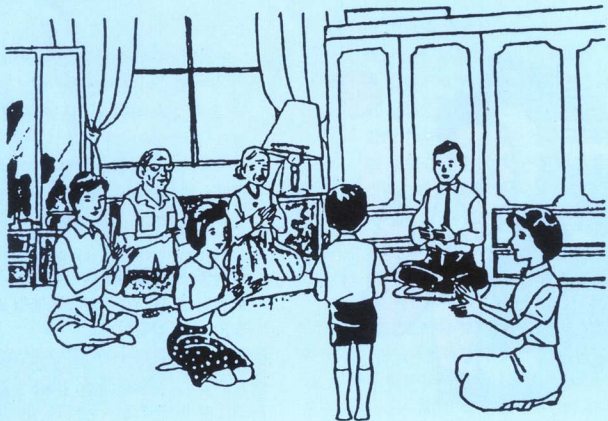
▶ 모든 소비자들이 에어컨의 온도를 3도 정도만 높인다면 하루에 10만 배럴의 석유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 1992년 여름에 범국민적인 에어컨 자제 운동으로 약 227억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

- 지나친 냉방은 냉방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름철의 실내 적정온도인 26도를 지키고 외부온도와 5도 이상의 온도차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 에어컨은 방이나 사무실 크기에 알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 에어컨 필터는 2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줍니다.

• 본문은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동아출판사 발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효도는 백가지 선행의 근본



김 병 렬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교장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륜을 망각한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 우려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효의 의미를 일깨우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효를 심어주기 위해 41년간 국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해오면서 인성교육에 힘써온 김병렬 교장선생님의 글을 실는다. <편집자 주>

.....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 효도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바탕이자 튼튼한 사회와 나라를 이루는 밑바탕이다. 그래서 옛말에도 효도는 백 가지 착한 행실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부모로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끝없는 희생을 통해 이만큼 자랐다.

요즘 어린이들은 공부를 잘해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의 비결'이란 연구 내용을 공개한 일이 있다. 사람이 사회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연구였다. 놀랍게도 성공을 위해 학식이나 재능이 뛰어나야 된다는 비율은 20%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 능력은 갖추어야 하지만 더 큰 비중은 대인 관계에서 성실, 근면, 정직, 책임, 인화, 협동, 양보, 인내 등 좋은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효도'이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대통령과 같은 자리)은 평생, 생일날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다고 한다. 그 연유를 묻는 사람에게, "생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기쁜 날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신 날인데 내가 어찌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나는 굶고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할 날이다."하며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렸다.

요즈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괴롭게 하

아버이 살아신제 섬길일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닦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 철-

는 불효자가 생겨나 세상을 놀라게 한다. 그래도 어버이날이면 전국에서 훌륭한 효자 효부가 뽑혀 큰 상을 받고 많은 칭찬을 듣는다.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버리는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 옛날, 부모가 늙고 활동을 못하게 되면 아직 살아있는데도 깊은 산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나쁜 풍습이 있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늙은 어머니를 고려장을 하기 위해 등에 업고 험한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중이었다. 어머니를 업고 가는 아들이 보니 등에 업힌 어머니가 산에 들어서면서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 발밑에 버리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어머님, 그 나뭇가지는 왜 꺾어서 버리십니까?"하고 물었다.

"길에 표시를 해 놓느라고 그런다."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아니, 이제 한 번 산에 들어가시면 그만인데 길은 표시해 무엇 하시려고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네가 혹시 나를 버리고 내려오다가 길을 잃고 이 험한 산 속에서 헤매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 되어 그런다."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는 어머니를 깊은 산 속에 버리러 가는 무정한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고생을 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따뜻한 그 사랑에 감동되어



효도는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옛 어른들은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살아 계실 때 효도를
잘 하라는 뜻이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업고
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다해 잘 모셨다고
한다.

우리는 최근에 가슴아픈 사건을 많이 보았다.
재산 때문에 부모를 해치고, 한창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족을 돌봐야 할 젊은이들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빼앗고 사람을 해친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집안과 부모를 원망하
고,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나쁜 환경을 탓하고
있다.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손이고, 주위에
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것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려는 용기도 없고, 목표
를 세워 달성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세상은 환경
이 좋은 사람만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환경을 이겨 내고 성공해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일본이 아직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 어느 시골
마을에 마쓰시타(松下幸之助)라는 어린이가 나이
많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집안이 가난해 아
버지는 공사장에 나가서 품을 팔아 번 돈으로 생
활을 하였다. 벌어 오는 돈이 적으니까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활동을 하지 못해 어린 마쓰시타가
학교에 갔다 오면 집안 일을 도왔다.

그런대로 행복하게 지내던 이 집안에 갑자기 불
행이 닥쳐왔다. 마쓰시타가 국민학교 4학년에 막
올라온 9세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집안에는 오랫동안
안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와 9살의 어린 마쓰시
타뿐, 이제는 두 식구가 살아갈 생활비와 어머니
의 약값이 걱정이었다. 고민 끝에 마쓰시타는 학
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로 하였다.

“내 손으로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일으키자!”

군계 마음을 먹고, 그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
고 낮에는 물지게를 졌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
면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 버는
돈은 되도록 적게 쓰고 저축을 했다. 이웃에서도
그의 효성과 부지런한 생활 태도에 감동되어 일이
있으면 그를 불렀다. 그는 아무리 힘이 들고 빠
빠도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할 만
큼 많은 돈이 모여 있었다. 그는 자기 성을 따서
마쓰시타라는 회사를 차려 더욱 열심히 일해 마침
내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인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의 성공은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마쓰시타 회장에게 젊은 회사 직원이 “회장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큰 성공을 했습니까?”하고 질문을 하였다.

“나는 하늘의 은혜를 세 가지 입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세 가지 은혜란 첫째, ‘가난한 것’, 둘째 ‘병약한 것’, 셋째 ‘못배운 것’이라며, 이 세 가지를 항상 감사한다고 하였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크게 벌려 놀라며 물었다.

“어째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이 세상의 불행은 모두 갖고 태어났는데도 도리어 하늘의 은혜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쓰시타 회장은, 가난 속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또 몸이 허약해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건강에 노력한 결과 90세가 넘었어도 30세 젊은이에게 지지않을 힘이 있고,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할 정도로 건강하며, 세번째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힘써 많은 상식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불행한 환경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 빨리 성장시켜 주기 위한 하늘의 시련이었으므로 이에 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각자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옛 사람들은 효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효도란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 자기 몸은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는 몸통과 팔다리, 작게는 머리털에서 살갗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는 제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

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자기 이름뿐 아니라 부모의 이름까지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라고 하였다.

효도는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옛 어른들은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살아 계실 때 효도를 잘 하라는 뜻이다. **태권**

김병렬

• 약력

청주사범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서울시 교육연구원 연구사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서울 교동·청운·동신·사대부국교사
서울 명수대·사대부국 교감
서울 대국·여의도·현 사대부국 교장

• 저서

키우는대로 거둔다(샐터사)
이야기 보따리(샐터사)
자녀교육 백문백답(샐터사)
인성교육 훈화집 6권(샐터사)

• 포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한국교육자대상 수상

●엄마의 수련기●

태권도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류 주 형/주 부

(중앙태권도장 어머니 태권도교실에서 수련중)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일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흔히들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30%, 재물을 잃으면 인생의 50%,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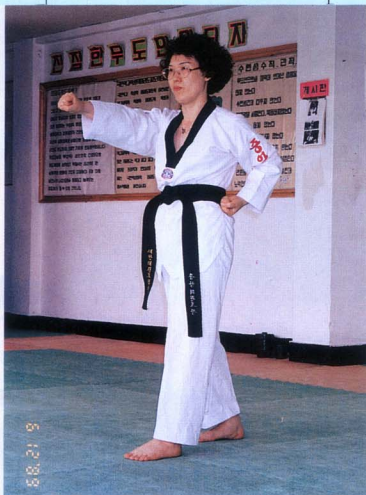
성인이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다는지 운동을 한다든지 각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한다.

나는 결혼후 살림 배우라 아이들 기르라 한 톨 두 톨 저축하는 재미 등으로 주부라는 경계안에 몰혀 7~8년을 생활하다 보니 체중은 늘고 여러가지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알레르기 비염과 불면증이 겹쳐서 하루에 2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나는 약에 의존하기에 앞서 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

작한 운동이 에어로빅댄스였다. 운동을 시작해서 3개월이 경과되니 모든 증세가 차츰 없어지기 시작했다.



류주형씨가 절도있는 품새를 보이고 있다

그 후 3년이 지나니까 알레르기 비염도, 불면증도 모두 없어지고 몸도 가볍고 몸에 균형도 잡히고 체력도 좋아져서 하루종일 수영을 해도

지칠줄 모를 정도의 체력이 되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 관절이 조금 통증이 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중 우리집 둘째딸인 지현이가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루종일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태권도장을 보내게 되었다.

지현이는 의외로 태권도를 아주 좋아하고 잘 하는것 같았다. 공부보다 몇배는 더 열심이었다.

집에 와서 공부는 안해도 품새는 열심히 연습을 하며 외우는 것이었다.

그렇즈음 태권도장에서 어머니 태권도교실을 열고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신청을 하고 시작하는날 쭉스러운 마음으로 도장에 갔다.

나는 음악에 맞추어 운동을 하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싱거워서 적응하는데 조금은 인내를 요했다.

젊은 사범님들께서는 어머니들에게 성의를 다해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며칠을 배우니 제법 재미도 있고 한달정도 지나니 자신감도 생겼다.

준비운동에 이어 간단한 요가와 스트레칭체조를 잘조화시켜 발차기, 품새, 겨루기, 체력단련

(타구, 배드민턴, 공원 달리며 돌기) 등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며 20년은 젊어진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태권도가 어떤 운동인지 알고 싶어서 관장님께 여쭙보고 책도 보니 태권도란 무기를 쓰지 않는(맹목) 격투기 형식의 운동이며 호신적 무예 스포츠인 동시에 정신적 인격을 추구하는 武道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1년 가까이 배우면서 몸이 건강해진 것은 물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 정말 몰랐던 세계를 경험한것 같

고 조금씩 아프던 무릎관절도 다 나았다.

태권도가 겉으로 보기엔 과격한 운동 같지만 품새를 배울땐 조금은 靜적인 운동같다. 지금은 에어로빅 댄스보다 훨씬 매력있는 운동이라고 자부하고 싶다.

어느정도 수련기간(개인적 차이가 있지만)을 거치면 승단 시험도 봐야 한다.

나는 작년에 보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보지 못한것이 정말 아쉽고 약이 오를 정도다. 다시 한번 승단 시험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더욱 더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다른 어머니들께 꼭 태권도를 배우라고 진심으로 권해 드린다. **태권도**

●어린이 수련기●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온다”



박 종 혁/서울신학국민학교 4학년

태 권도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2년이 다되어 간다.

지금 생각해 보니 처음 태권도를 다닐 때만 하여도 나는 허약하였고, 버릇도 없었고, 끈기도 없었으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아빠나 엄마께 업어달라고 하는 아주 나약

한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높은 산도 아빠나 엄마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지치지 않는다. 몸이 튼튼하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이웃어른들께 인사를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 어디에서든지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다.

학교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특기발표를 할 때면 항상 자신있게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특기를 했을까

걱정이 된다.

수련하는 동안 힘이 들때도 많이 있었지만 한급한급 올라갈 때마다 보람이 더 커져만 간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자랑스럽게 품땀을 매고 있다.

나는 도장에 갈때면 언제나 발걸음이 가볍다.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꾸준히 수련하여 몸과 마음 또 정신을 튼튼히 하여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태권도**

● 외국인 수련기 ●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온 프랑스인

PHILIPPE LEBORONE/이화여대 불문과 전임강사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정의체육관에서 수련 중

(דת) 년전에 한국에 온 외국인으로
서 친구들이 물어오는 질문은
늘 같은 점에 대한 것들이었다. 특히
“왜 한국에 왔느냐...” 하는 물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권도
를 하기 위하여 왔다”고 나는 늘 대
답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에는 1988년
에 이었는데, 그때 한국에 온 이유는
첫째, 연세대 한국어 학당에서 국어
를 공부해서 88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둘째, 무술의 기원을 찾아
보고 싶었다. 불란서는 가라테의 선
진국이나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내가 왜
태권도를 선택했을까, 한국무술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싶었다.

삶은 우연한 일의 연속에 불과하
다. 한 예로 태권도와의 만남이 그렇
다.

1983년 3월 12일 당시 나는 20
살이었고 소르본느대학 법과대학 3
년생이었는데 죽마지우와 같은 친구
가 태권도장에서 노란띠를 받는다고
하길래 태권도장에 따라가보게 되었
다.

그때만 해도 나는 태권도가 뭇인
지 전혀 몰랐다. 아는 것은 유도과
가라테 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는 태권도장에 가보고
태권도의 세계에 대해 무언가 놀라
움을 느꼈다.

수련생들의 수련자세와 그 지도
하는 사범님 때문이었다. 그의 눈에
는 나를 부르는 듯한 것이 있었고 어
떤 중요한 일이 생기겠다는 눈빛이
있었다. 이 지도자, 사범님의 친절.
그리고 그의 제자의 행실은 그때 나
를 감동시켰다.

나는 그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
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용호사범님
의 제자가 된지 12년이 되었다.

이제 내가 서울에 온지 4년이 되
었다.

서울에서 태권도와의 첫 만남은
연세대 외국인 태권도부에서 수련을
하면서 김영선사범님께 배웠고 다음
해 1989년 여름에는 석달동안을 서
울성동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태권
도를 수련했다.

나는 5년동안 자전거 경기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전거 경기가 가
장 힘든 운동인줄 알았는데 성동고
등학교 태권도부에서 김현성사범님
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 새
롭고 어려운 운동을 또 발견했다. 태
권도경기였다.

첫3주 동안은 너무 어려워져 기초
부터 다시 배웠다. 세달후 다시 불란
서로 돌아갔을때 확실히 지식과 몸
이 한단계 위로 올라갔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후 2년동안 파리 7대학에서 한
국어를 공부했고 다시 한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불교포
인 나의 약혼녀가 부모님이 계신 한
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나는
1991년 조선대학 불문과 지도교수
로 와서 1년 근무를 하고 서울에 올
라왔다.

그때부터 태권도의 정수를 알고
자 여러 체육관을 찾아가 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7월에 국기원의 소
개로 국기원시범분과 부위원장인
구정회 사범님의 정의체육관에 가보
았다.

나는 나이에 관계가 있는지 시합
에 관심이 없어지고 품새, 맞추어 겨
루기, 호신술 등이 그리웠다.

옛날 파리에서 정통적인 무도를
배울때처럼 태권도를 다시 배우고
싶었는데 이곳 정의체육관의 구정회
사범님의 친절과 깊은 지식을 보고
입관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금은 정의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 체육관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때때로 이곳 정의 체육관 어린 수련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구정회 사범님은 태권도를 지도하며 수련생들에게 예의범절과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된다는 태권도 기본동작을 설명하며 정신과 육체가 일치하는 무도 태권도를 지도한다.

나도 훗날 프랑스에서 프랑스 젊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겠다.

한가지 우리 외국수련생들 눈에는 한국과 외국의 태권도 동작이 조금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고 태권도 역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화된 시점에서 모든 기본동작들과 품세를 단일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경험했었다. 구정회사범님의 추천으로 '94 태권도한마당에 참가해 품새와 이단 앞차기 부분에 1위를 차지했다.

태권도 한마당은 '92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태권도의 전반적인 기술과 정신이 깃든 무도의 한마당이라 생각되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스포츠만 발전하면 세계의 태권도 정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마당 대회를 더 크게 계속 개최하므로써 무도와 스포츠의 태권도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에 국기원에서 대사컵 외국인 대회가 개최되어 품새와 겨루기 대회가 같이 열렸는데 이 대회에 참가해 겨루기 1위,

품새에 입상하여 매우 기뻐다.

이 대회가 외국인 수련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것같아 계속 큰대회로 발전해 줄것을 바라고 싶고 태권도 한마당이나 엠버서더 컵 대회를 여러 국가에 널리 알려져 더 많은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마당을 통하여 기본적인 동작을 익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60%가 어린이인것 같다.

이 어린이들이 태권도수련을 통해 예의와 인성교육 및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훗날 돈없고 이름없고 예의와 존경심도 모르는 프랑스의 경범죄자가 많은 도시에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가르치는 체육관을 설립하여 태권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다. **태권도**



정의체육관 수련생들이 대전국민학교 운동회 때 시범을 보이고 난후(왼쪽 뒤가 필립씨)

인성교육에 큰 밑거름이 되어준 태권도

한 현 정/주 부(가동국민학교 5학년 박문용의 어머니)

현제가 없는 문용이는 우리 집 안 어른들의 귀한 자손이었고 나의 소중한 아들이며 과보호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중 1989년 10월, 마침 유치원 2층건물에 아래층이 태권도장이어서 7살짜리 문용이에게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일설에 의하면 태권도를 하면 키가 자라지않고 몸도 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왜소한 체구의 문용이에게 태권도를 시키기가 망설여졌었다.

그러나 태권도가 오히려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좋은 운동일 뿐더러 정신력을 키워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전신 운동이라는 관장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운동이 지금 문용이가 5학년이 되어 지난 5월에 국가원에서 3품 승단심사에 합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특별한 가정사정에 의해 약 6개월정도 운동을 쉬는 것 이외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꾸준히 해 왔다고 자부한다. 문용이 자신도 의례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중단하지 않고 결실을 맺는 성격이라서 태권도장을 5년정도 다녔는데 싫증내지 않고 흥미있게 다니고 있다.

또한 체육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체육은 물론 순발력과 지구력, 판단력을 키우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품 때의 문용이의 모습과 2품때의 모습이 다르듯이 3품을 탄 문용이의 모습은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변한 모습에 자부심이 대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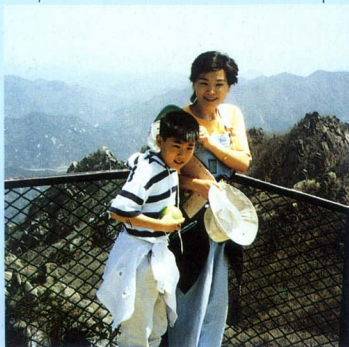
든 열심히하고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혼자 크는 아이 답지않게 의연하게 키우려고 노력한다.

문용이가 추운 겨울에도 도복 한 겹만 입고 양말도 신지 않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규칙을 잘 지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태권도가 그 어떤 운동보다도 인성교육에 큰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 확실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4학년 여름방학 때 도보로 국토횡단탐험을 16박 17일 동안 다녀온 것도 태권도가 다져준 기초체력과 훈련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참을 줄 알고 협동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태권도의 이념이 어느 덧 문용이의 머리속을 차지했었나보다.

어느 새 훌쩍 커버린 아들녀석의 모습에서 이제 급성장할 하게 될 태권도에 기대를 걸어 본다.

한현정씨와 아들 박문용



매사에 적극적이며 여러 개의 과의 수업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되는 운동을 태권도가 만족시켜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훗날 성인이 되어서 품이 단으로 승단되어 명실상부한 검은 띠를 땀 날만큼 기다린다.

물론 태권도 국가대표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국민사회체육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태권도 중추국으로서의 자부심도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깊이 새기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사치스런 운동보다 조금은 소박하고 일반적인 운동이지만 어린이들과 선수들만의 보는 경기가 아닌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이기를 문용이를 통해서 실천해보겠다. **END**

“엄마, 괜찮아요...” 인호는 예전의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이 혜 란/주 부(문정국민학교 3학년 도인호 어린이의 어머니)

인호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
한지도 벌써 3년째로 접어든
다. 태권도를 시작한 동기는 외아들
로 혼자 자라 나약하고 인내심이 없
고 조그만 일에도 잘우는 이기적인
아들로 자라고 있는 것이 무척 걱정
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민끝에 국민학교 입학과
동시에 태권도를 시키면 남에
게 맞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
로 가까이 있는 태권도장을 보
냈다.

처음 도복에 흰띠를 맨 아들
의 모습은 별로 미덥지가 않았
다. 끈도 묶을 줄 몰라서 매일
나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

그런데 무슨 학원이든 보내
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결석을
잘하는 아이가 어쩔일인지 하
루하루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잘다니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겨루기를 하다 잘못 방어를 하
여 코피가 잔뜩 난 아들의 모
습을 보고 놀란 내게 아들은 씩씩하
게도 “엄마, 괜찮아요... 겨루기하다
내가 잘못해서 맞은건데 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아이는 이제 예전
에 특하면 잘 울던 나약한 아이가 아
니었다.

흰띠에서 노란띠, 노란띠에서 파
란띠... 빨간띠... 이렇게 띠를 바꿔

매고 온날 좋아 팔짝뛰는 모습은 엄
마인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태권도를 보내 본 엄마들은 다들 알
것이다.

이렇게 일년, 이년을 보내는 동안
인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이혜란씨와 아들 도인호

또 태권도장에서는 여름이면 수
영장, 3박 4일의 캠프 일정, 겨울이
면 눈썰매장, 싸바이벌 게임 등으로
자칫 운동만 하면 지겨울새라 협동
심과 단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도 다양한 것이 참 좋았다.

지난 3월 19일날은 그 동안 태권
도장에서 닦았던 실력을 공식적으

로 인정받는 국기원 시험날!

태권도복을 깨끗이 준비해 입히
고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인호의 차
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우리 태권도
장 아이들의 차례!... 누구랄것도
없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1장에서 8

장까지의 품새를 틀리지 않고
잘하였다. 이제 인호의 겨루기
차례! 다른 도장 아이와 붙은
인호의 눈빛은 이기겠다는 각
오로 반짝였다.

밀고, 소리지르고, 다시붙
고... 긴장이 되어선지 나의 손
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인호는 단 한대도 맞지않고
정말 잘하고 있었다. 우리도장
엄마들은 서로 당시 아이들이
나오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응
원을 같이했다. 이렇게 해서 대
견스럽게도 1품을 딴 것이다.

그동안 애써 주신 관장님 사
범님께 마음깊이 고마움을 느꼈
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면서 태권도의 인기는 세계
에서 대단하다고 한다. 앞으로도 2
품을 따기 위해 계속 열심히 배우기
를 아들에게 바라며 세계화된 태권
도를 배운다는 자부심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수양하며 건강하게 성장
해 줄 것을 믿는다. **태권도**

인천시청, 여자실업팀 최초로 창단

코치에 임신자씨, 전·현국가대표로 팀 구성

태권도 사상 처음으로 여자 실업팀이 창단되어 여자 실업 태권도의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자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한 곳은 인천시청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팀을 발족하고 국내외 대회를 석권하겠다는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인천시청팀 코치로는 인천 출신으로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한 바 있는 임신자씨가 발탁되었다.

임신자코치는 상인천여중과 인천체고, 경희대, 상명여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85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1987년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밴텀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도 경력으로는 '89년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코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한국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창단 멤버로는 '95국가대표 웰터급 1위자인 조향미(경희대 4년), '95국가대표 페더급 3위자인 윤명숙(상명여대 4년)을 비롯해 전 국가대표 출신인 황은



임신자 코치

숙(상명여대졸, '92바르셀로나 올림픽 밴텀급 1위), 김성숙(상명여대졸, '92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제3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페더급 2위), 이선희('92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바르셀로나올림픽 미들급 1위) 등 전, 현 국가대표로 구성되었다.

임신자코치는 “여자 최초의 실업팀이라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자 실업팀이 없어 대학을 졸업한 여자 선수들이 활발히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고

운동을 그만두거나 일선 지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실업팀의 창단이 이루어져 여자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면서 인천시청팀의 창단으로 다른 지역이나 기업의 여자 태권도 실업팀이 많이 창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포항에서 개최될 전국체전 여자부 정상을 노리고 있는 인천시청팀은 여자 태권도계를 대표하는 기량과 정신을 보여주는 팀이 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임신자 코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량면에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체력훈련과 함께 무엇보다도 철저한 프로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선수가 프로정신이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태권**

꿀찌고모의 결혼

글/ 강원희
그림/ 이희탁



를지도 모르지.’

태상이는 남자친구도 한 명 없는 고모가 시집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차라리 혼자만의 방을 갖는 꿈을 포기한 채 꿀찌 고모의 심부름이나 하면서 고모방에 얹혀 사는 게 마음 편한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친구 정수가 태상이네 집에 놀러왔습니다.

때마침 고모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외출 중이었습니다.

고모가 집에 있을 때는 고모방이지만 외출중 일때는 순전히 태상이 방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없는 나라에선 새앙쥐가 왕이듯이 말입니다.

“태상아, 네 방은 꼭 동화속에 나오는 공주님 방 같구나!”

정수가 태상이 방을 둘러보며 감탄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때 마침 고모가 노크도 없이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모의 손에는 신부 꽃다발인 부케가 들려져 있었습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태상이의 소원은 통일 다음으로 꿀찌고모 방에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상이는 유치원 시절부터 꿀찌고모와 한 방을 썼습니다.

태상이에겐 고모가 셋이지만 모두 시집가고 막내인 꿀찌고모만 노처녀로 남은 셈입니다.

꿀찌고모가 대학생 시절일 때 만해도 꽃처럼 향기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뚱뚱하고 신경질 많은 노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다.

여자와 한 방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상아, 고모 옷 갈아입어야 하니까 잠깐 나가줄래?”

고모의 명령이 떨어지면 태상이는 숙제를 하다가도 방에서 내쫓기기 일쑤입니다.

고모가 하루속히 시집가길 기다려보지만 욕구불만으로 먹는 게 취미인 고모는 날이 갈수록 뚱뚱해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기만 합니다.

‘고모가 시집가길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가 장가가는 게 더 빠

“미안하지만 너희들 나가 줘!”

고모는 침대에 꽃다발을 꿰개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상이와 정수는 엉겁결에 슬그머니 고모방을 나왔습니다.

태상이와 정수는 모래가 반짝이는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마 우리 고모가 또 꼴찌일 거야. 친구들 중에도 이제 결혼 안한 사람이 없을 걸. 저 꽃다발을 받으면 다음에 결혼할 차례래. 하지만 고모는 남자친구 그림자조차 없거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차라리 꽃다발을 받지 않는 게 나을텐데...”

저 꽃다발은 신부가 결혼식이 끝나면 뒤로 던져 그 꽃을 받는 사람이 다음 차례 신부가 되는 거래. 그동안 고모는 여러 차례 그 꽃다발을 받았단다. 왜냐하면 나랑 야구연습을 한 덕이지. 이제 고모 방에서 독립하긴 다 틀린 것 같아.”

태상이가 한숨을 쉬며 하소연 하듯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넌 내 신세하고 그렇게 비슷하니? 나도 노총각인 삼촌하고 한 방을 쓰는데 삼촌이 장가가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란다. 차라리 고모랑 한 방을 쓰면 나을지도 몰라. 눈물냄새만 맡으면 되니까. 삼촌은 술냄새, 담배냄새 게다가 발냄새까지 합쳐지면...우웬이야.”

정수가 토하는 시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 그럼 우리 고모를 너네 삼촌에게 소개시켜 주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는 고모로부터 삼촌으로부터 각각 독립하는 거지. 오동은 자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지?”

“삼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야. 컴퓨터로 편지를 쓴다음 각각 집주소로 보내는 거야.”

태상이와 정수는 서로 손바닥을 ‘찍’ 마주쳤습니다.

태상이와 정수는 삼촌이 외출한 것을 틈 타 컴퓨터로 편지를 썼습니다.

선미씨,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초코렛을 좋아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래 장소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씨,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여자를 찾아주세요.

“우리 삼촌은 축구광이야. 축구공과 결혼한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신부를 날마다 발로 걷어 차는 거 아니니? 하지만 우리 고모도 쉽게 걷어차일 여자가 아니지. 몸무게로 따지면 결코 평범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사람 발이 초코렛으로 되어 있다면 다 먹어치울 사람이거든.”

결국 두 사람은 운명의 장난

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국민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상이와 정수는 너무 쉽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러 동절 했습니다.

결혼식날 밤 고모가 없는 썰렁한 방에 혼자 누워있던 태상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을 차지하면 유리창에 보이는 밤하늘 별조차 태상이의 몫으로 빛내 기쁨에 들뜬 줄 알았는데 웬지 몸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따르릉—

그때 전화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상이니? 나 정수야. 잠이 안와서 그냥 걸었어. 그런데 왜 이리 마음이 썰렁하냐?”

“나도 그래”

“혼자 방에 누워있으려니까 삼촌의 발냄새까지도 그리운 거 있지.”

정수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상이도 훌쩍훌쩍 울고 말았습니다. **◆대선◆**

약력 / 강원회

- 아동문학평론 신인상
- 계몽아동문학상(동시부문)
- MBC 장편창작동화 대상
- 세종아동문학상 수상
- 지은책

〈빨간구름 이야기〉·〈화가와 호루라기〉·〈회파람 부는 허수아비〉·〈북창에서 온 사자〉·〈날고싶은 나무〉(동시집) 등이 있음.

동화집, 만화집 그리고 우리의 이웃 친구가 쓴 어린이 일기집

송재찬 / 동화작가

이원복 교수의 사랑의 학교 (도서출판 사랑의 학교)



〈먼나라 이웃나라〉로 우리 어린 독자들에게 친근해진 이원복 교수가 20년 전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했던 만화들을 한데 묶어 〈사랑의 학교〉라는 산뜻한 만화집을 냈다. 짧은 단편 만화지만 이교수의 만화가다운 유머와 재치가 빛나는 긴 감동의 이야기들이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상권에 묶여 나온 48편의 이야기들. 이 만화집은 소년한국일보 연재 후에 아주 두껍고 품위있는 만화집으로 출판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절판되었었다. 필자는 연재때 읽고 다시 책으로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책이 절판된 것을 참으

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책을 선물 받았던 어린 친구들(지금은 성인이된)이 지금도 만나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의 지하철 정류장에는 1페니의 동전으로 한응큼의 과거를 살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있다. 그러나 가난한 소년 조이는 늘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본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새해 선물로 1페니를 선물한 것이다. 신나게 달려가는 조이. 조이도 이제 남들처럼 동전을 집어넣고 쏟아지는 과거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이가 막 도착하기 전에 부자집 외동아들 〈엠티지〉가 지하철 정류장으로 들어선다. 그 소년의 눈에도 자동판매기의 알록달록한 과거가 보이고.....엠티지는 엄마에게 1페니만 달라고 한다. 그러나 부자인 엄마에겐 동전 1페니가 없었다. 잔돈을 바꾸어 올만한 시간은 없고.....엠티지는 울어대고, 엠티지에게 세뱃돈으로 받은 금돈 하나보다 1페니가 더 필요했다. 일백개의 1페니를 바꿀 수 있는 금돈. 그러나 엠티지에게 1페니보다 못한 금돈이었다. 엠티지는 계속 울어댄다. 그 때 숨을 헐떡이며 조이가 온 것이다. 자랑스럽게 1페니를 들고, 자동판매기에 막 돈을 넣으려던 조이는 낯선 소년의 울음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알아차린다. 엠티지에게 양보한 1페니. 두 아이는 함께 1

페니를 쓰고…… 옛지이는 차에 오르기전 뭔가를 조이 손에 쥐어 주는데 차가 떠난 후에 보니 금돈이었다. 일백개의 1페니로 바꿀 수 있는 금돈.

이상은 첫번째 이야기인 <친국의 소년>스토리이다.

책을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세계명작, 실화 등 아주 다양한 48편의 만화가 묶여있다.

기억이와 니은이의 일기 (김지민 지음. 고려원미디어)



조금 긴 이야기를 찾는 저학년 어린이에게 읽힐 수 있는 좋은 동화집이 나왔다. 6살 난 기억이의 눈으로 본 이웃과 가정 이야기이다. 신예동화작가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기억이에겐 아주 개성이 강한 동생 니은이가 있다. 맞벌이하는 부모, 그리고 대학생인 고모 아들 용규형.

<6시-조금만 더 잘래>에서 시작해서 <10시-발도 안 닦고 쿨쿨>까지 기억이와 니은이의 하루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엮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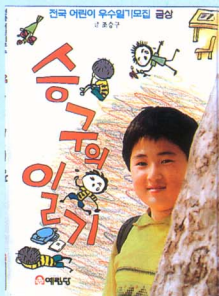
어느 휴일, 부모님들은 용규형만 믿고 모두 출근하는데 용규형은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다. 둘이서 잘 놀겠지 하고, 비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공을 차는 니은이. 그 동생을 보는 형, 기억이. 그 때 기억이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자고 기억이를 꼬이지만 않아도……

기억이는 일하는 관리 아저씨에게 니은이를 맡기고 과자를 먹는 사이 사고가 생긴다. 니은이가 자전거에 받쳐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다.

기억이는 이 사고를 통해 부모가, 동생이, 이웃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는다.

기억이와 니은이의 독특한 성격대비와 유머러스한 삽화가 책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승구의 일기 (조승구 지음. 예림당)



승구의 일기는 시골 학교 6학년인 승구란 아이의 일기집이다. 승구는 4학년 때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두 번의 뇌수술 끝에 수술 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다. 공부 못하는 아이, 아무리 애써도 평균 점수가 오르지 않아 애쓰는 모습이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혀있다.

승구는 사고를 당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일기를 쓰는 힘만은 더 생겨난 듯 싶다. 마치 시인처럼 일기를 쓴다. 예쁘지만 무서운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장미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산수시협에서 성적이 조금 오른 것을 <화산처럼 조금 부풀어 오른 성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물을 보는 눈이 맑고 아름답다. 전국 어린이 일기 모집에서 금상을 탄 후 책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출판사**



나 자신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씌으로써 예의바른 태권도 가족이 되어야겠다.

게재된 원고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한 『우리말의 예절』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경우 나를 지칭하는 말은 보통 ‘난데.’하거나 ‘형님이세요? 전데요.’처럼 말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목소리로 판단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먼저 부름으로써 상대방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목소리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나 전화의 자동 응답기에 말할 경우와 같이 꼭 자신을 밝히려

하는 경우가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손자나 자녀가 장성하면 ‘할아비다’, ‘아비다’, ‘어미다.’처럼 말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어린이의 말을 빌려 ‘아빠다.’, ‘엄마다.’처럼 말하기도 한다.

부모에게는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여자들이 아명 외에 따로 이름이 없던 시절 시집간 딸은 결혼을 하면 친정 부모에게 남편의 성을 따라 ‘김실(金室 또는 김집)입니다.’ 또는 ‘○○어미입니다.’처럼 자신을 밝히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두 이름이 있으므로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 좋다.

조카에게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삼촌, 아저씨, 고모, 이모’ 등과 같이 자신을 밝힌다. 조카는 삼촌형렬의 사람에게 부모

.....

남매와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버지’, ‘○○어미’라고 할 수도 있다.

부모님의 친구나 부모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저희 아버지가 김 ○자 ○자 쓰십니다.’ 또는 ‘저희 아버지 함자는 김 ○자 ○자이십니다.’로 말하는 것이 정형이다. ‘○○○씨/부장(님)의 아들입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의 친구에게는 ‘○○○의 아버지이다.’가 정형이나 장성한 자녀의 친구를 대접해 ‘○○○의 아버지다.’, ‘○○○의 아버지되는 사람이다.’ 등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자녀의 스승에게는 ‘○○○의 아버지입니다.’ 또는 ‘○○○의 아버지입니다.’처럼 말할 수도 있다.

동기간 서열 쓰기

동기간에는 순위 사람이 자신을 밝힐 때 손아래 사람과의 관계말로 ‘형인데.’, ‘누나다.’처럼 말한다. 이 때 지명이나 서열을 밝혀 ‘부산 누나, 큰형’ 등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순위 동기간에게 말할 때에는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 ‘막내, 둘째’ 등과 같이 서열로 할 수 있다.

동기의 배우자에게는 ‘○○ 아버지(아비, 아빠)인데요.’, ‘○○엄마(어미)인데.’처럼 말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녀 이름을 넣어 ‘○○ 삼촌’, ‘○○ 고모’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제수나 형수에게 ‘삼촌인데요.’하거나 친정 올케나 동생에게 ‘나 고모인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동기의 친구에게는 ‘○○○씨가 제 큰형입니다.’, ‘○○○씨의 동생입니다.’처럼 자신을 밝힌다. 형이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씨가 제 형님이십니다.’처럼 높여 말한다.

부부간에는 서로 ‘나예요.’하고 말한다. 서로의 목소리를 모를리 없기 때문에 따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없다. 배우자의 친구에게 여자는 ‘○○○씨의 아내(집사람, 처(妻))입니다.’ 또는 ‘○○○씨가 제 남편입니다.’한다. 남자는 ‘○○○씨의 남편(바깥사람)입니다.’ 또는 ‘○○○씨가 제 아내입니다.’라고 자신을 지칭한다.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무개의 배우자라는 것을 밝

혀야 할 경우에는 ‘집입니다.’라고 하거나 ‘○○○씨의 아내(처, 집사람, 안사람)입니다.’, ‘○○○씨의 남편(바깥사람)입니다.’라고 한다.

시부모에게는 자신을 ‘○○어미(어멈)’라고 한다. 아이가 없을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어머니 저 영희인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 시부모에게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여자가 시집을 올 때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친부모에게와 마찬가지로 시부모에게도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생각이었다. 시가 쪽 순위 친척에게는 ‘○○어미(어멈)’, ‘○○엄마’, ‘○의 처’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시가 쪽 손아래 동기에게는 ‘○○엄마, ○○어미(어멈)’ 외에 그들과의 관계에 따라 ‘형수’, ‘올케’, ‘동서’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처부모나 처형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서방입니다.’라고 하고 동서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서방’ 또는 ‘동서’로 자신을 지칭한다. 처남에게는 ‘매부’, ‘매형’ 처제에게는 ‘형부’라고 한다. 순위 처남에게는 ‘○○ 아버지’ 또는 ‘○서방’도 가능하다. 손아래 동서에게는 ‘○○ 아버지’와 ‘동서’로 자신을 지칭하면 된다. 시가 쪽 친척에게는 ‘○○어미(어멈), ○○엄마, ○○의 처’ 등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상사(上司)도 직함 말해야

직장에서도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자신을 지칭할 경우 상대방이 목소리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직함으로 ‘사장인데.’ 또는 ‘상무이사인데.’ 또는 ‘김 이사인데.’ 하거나 부서와 직함을 모두 밝혀 ‘총무부 김 부장인데.’처럼 말하기도 한다.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는 ‘상무이사입니다.’ 또는 ‘김(○○)이사입니다.’, ‘총무부장 김○○입니다.’처럼 말하고 직함이 없는 평사원들은 누구에게나 ‘총무부 ○○○입니다.’처럼 말한다.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회사 이름을 밝혀 ‘○○○주식회사 총무부장 ○○○입니다.’로 말한다.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말하는 경우도 위와 같다. **태권**



푸른솔 어린이 도보탐험대

남한산성 정상 등정,
쓰레기 줍기하며
환경보호에 앞장



박진교/ 성남 푸른솔 체육관장

요즈음 태권도를 배우지 않고
또 태권도장을 거치지 않은 어
린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
활속에서 성장기의 어린이들에

게 태권도는 꼭 필요한 운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도장은 자라나는 어린이
들에게 태권도를 통한 극기심과
예의, 협동하는 정신 등을 키워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
도록 1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
여 매월 관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중 6월의 행사로 인내력과
끈기를 기를 수 있는 “푸른솔
어린이 도보 탐험대”를 조직하
고 남한산성을 도보로 정상까지
오르고 쓰레기줍기 등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는 행사를 마련했
다.

1995년 6월 17일(토).

지칠줄 모르고 올라가는 온도
계가 31도를 가리키는 무더운
오후였다.

태양별이 쏟아지는 이런 날씨
에 어린이를 걷게 한다는 것이
무리인것 같았다.

그러나 어찌랴 이미 옆질러진
물인것을……

오후 12시가 조금 넘으니 성
질이 급한 대원들은 벌써부터
배낭을 짊어지고 체육관에 들어
서고 있다.

오후 1시 30분경이 되자 푸른
솔 어린이 도보 탐험대원들이
100% 집합완료가 됐다. 탐험대
의 대상은 6세이상 13세까지 인
원은 120명.

미리 짜여진 진행계획표에 의
해 각 조장에게 명하여 조별로
인원확인후 도보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에 대한 설명을 끝

으로 오후 2시를 기해 출발이 시작되었다.

어린 대원들을 보내는 어머니들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잘 다녀오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

남한산성 정상까지는 10.5km, 약 6시간 소요의 긴 왕복 거리……

처음으로 긴거리를 걷는 만큼 만만찮은 길이었다.

관공서에서 경찰차와 응급수송차량인 129차량을 지원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더운 날씨에 행군을 하게되면 더위를 먹는 어린이, 발에 물집이 생겨 낙오가 되는 어린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응급상비약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확인하고 길을 떠났다.

출발 1km지점부터 탐험대가 더위에 지치는 것 같아 동요에서부터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

역시 요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동요보다는 TV에서 흘러 나오는 유행가를 더 잘부르는 것 같다.

도보행군 2.5km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덥고, 다리가 아프다고 울며 하소연하는 대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편하게 차를 타고 가려는 피병(임살)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쓰러지는 낙오자가 된다면 허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권도인이 된다. 여러분의 선배태권

도인들은 끈기와 투지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다. 또한,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이끌어낸 불굴의 사나이들이다. 우리도 참고 견디어 정상에 우뚝 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자”며 어린이들을 이끌었다. 어린이들은 다시 힘을 내는듯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지만……”

특히, 중간 대열에 있는 유치부(6, 7세) 어린이들은 “힘내라, 힘!”이란 노래를 울동과 함께 부르며 도보행진을 계속해 지나가는 행인들이 박수를 쳐주며 격려했고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손을 흔들어 주는 어른들이 있어 어린이 탐험대는 용기가 났던지 씩씩한 모습으로 걸었다.

드디어, 남한산성 정상에 올랐다. 걸어서 온 소요시간이 약 3시간. 단 한명의 낙오자와 포기한 대원없이 정상에 우뚝 선 것이다.

어린이 대원들은 얼마나 기쁜지 저절로 탄성이 흘러 나왔다.

“아! 시원하다. 아-호”

푸른솔 체육관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태권도인으로 보이고 예뻐다.

한번도 쉬지않고 걸었기에 대원 모두가 기진맥진 상태라 우선 각 조별로 인원점검을 한 후 여장을 풀게하고 식사를 하게했다.

모든 대원이 허기가 저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식사를 했다.

식사가 모두 끝난후 스트레칭

체조와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여독을 풀었다.

오후 6시. 대원들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준비해간 쓰레기 봉지에 산을 괴롭히는 강릉과 빈병 그리고 오물을 1시간동안 수거했다.

오후 7시 푸른솔 어린이 도보 탐험대는 목적을 달성하고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할 때는 짙어지고 온 배낭을 차에 모두 싣게 하고 맨몸으로 1km는 구보로, 1km는 도보로 쉬면서 최종 목적지인 푸른솔 체육관에 오후 9시경에 도착 했다. 도착예정시간보다 늦게 와서인지 60~70명의 어머니들이 체육관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몇분의 어머니는 폭죽을 준비하여 터트리기도 하였고, 걱정된 어머니들은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다. 체육관 주변은 이산가족찾기 만남의 장이 되어 버렸다.

“관장님 고생 많으셨죠?”

이 어머니, 저 어머니 할것없이 감사의 인사가 빙빳했다.

아! 이것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행복과 호환함으로구나. 그동안 긴장되어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가셨다.

끝으로 푸른솔 어린이 도보 탐험대에 협조하여 주신 학부모님, 경찰관서, 129구조대원과 대한민국 지킴이 시범단, 그리고 박점선사범님과 방순자, 고선미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비군**

태권도 한마당 '95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KBS 88체육관에서
8월 14일 접수 마감



대한태권도협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태권도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태권도 한마당 '95」 경연대회를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KBS 88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경연종목은 개인종목(손날격파, 주먹격파, 발격파, 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종합격파)과 단체종목(일반품새, 창작품새, 태권체조, 시범겨루기)으로 나누어지며 격파부문 우수상 수상자가 대결을 벌이는 격파 최강자 선발전(손격파, 발격파, 묘기 격파)이 있다.

태권도 유단·품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태권도 한마당」은 그동안 청년부와 장년부를 구분하던 것을 청장년부로 통합하였으며, 단체종목에 청장년부 및 여성부가 참가하는 시범 겨루기 종목을 신설해 약속된 공격, 방어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실전 기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태권도 한마당 '95」와 함께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태권도 세계화의 과제 및 중주국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회요강

1. 대 회 명 : 태권도 한마당 '95
2. 대회기간 : 1995. 8. 26(토)~28(월)
3. 대회장소 : KBS 88 체육관(등촌동소재)
4. 주 최 : 대한태권도협회, 한국방송공사(KBS)
5. 후 원 :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문화체육부

6. 참가신청

가. 접수마감 : 1995. 8. 14(월) 17:00

※ 1인 1종목 참가

(단, 개인종목 참가자는 단체 1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접 수 처 :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
(전화 420-4271~3, FAX 420-4274)

* 참가비 없음, FAX로 접수 가능

나. 대표자회의 : 1995. 8. 17(목) 14:00

올림픽회관 1층 회의실

다. 참가등록 : 1995. 8. 25(금) 13:00~17:00

KBS 88 체육관

* 경연번호표와 참가증서 나누어 줌.

* 단체종목은 대표자, 개인종목은 개인이 참가등록.

참가자격 및 부별 참가종목

1. 참가자격

가. 소년부 : 15세 미만의 남, 여 유품자

나. 청장년부 : 15세 이상 남자 유단자

다. 여성부 : 15세 이상 여자 유단자

2. 부별참가 종목

구분	부별	세부종목	소년부	청장년부	여성부
개 인		손발격파		0	
		주먹격파		0	
		발 격 파		0	
		멀리뛰어차기	0	0	
		높이뛰어차기	0	0	
단 체		종합격파	0	0	0
		일반품새	0	0	0
		창작품새	0	0	0
		시범겨루기		0	0
		태권체조	0	0	0

단체 종목—품새

경연종목

- 인원 :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일반품새

구분\내용	품 새	선택	지 정
유품자	태극-금강	1	고려, 태극8장 중1
유단자	고려-일여	1	고려, 태백, 평원 중1

• 창작품새

기존품새와 유사한 형태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새로서 기존품새에 포함되지 않는 맨손공방 또는 무기를 든 상대와의 공방기술로 구성할 수 있으며 태권도 동작 원리에 부합되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 시범겨루기

두사람 이상이 1:1, 1:2로 구성하여 사전에 연습, 약속된 공격 방어기술을 보여줌으로써 태권도의 실전기술능력을 평가 함.(호신술포함)

경연시간은 2분, 복장은 경기용구를 착용한다.

• 태권체조

태권체조는 태권도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품새와 창작품새의 구성과는 달리 일반인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 하되 형태는 전신운동으로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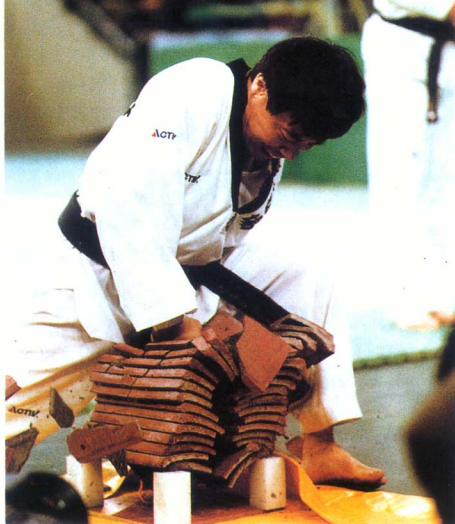
경연시간은 2분이내로 제한하며 필요시 음악 또는 음향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평가

예선전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를 합격시키고 최종전은 고득점자 우선으로 입상자를 결정한다.

시상

- 참가자 전원에 대한 참가증서
- 4개 부문별 결승 진출 5개팀 : 우수상 시상
- 올해의 품새상 시상 : 창작품새 결승 진출팀 중 최고 점수 획득팀 선발



개인 종목—격파

경연종목

- 손날격파 : 붉은 벽돌 격파
- 주먹격파 : 기와 격파
- 발격파 : 송판 격파
- 멀리뛰어차기 : 장애물 넘어 송판 격파
- 높이뛰어차기 : 높이뛰어 송판 격파
- 종합격파 : 고난도 기술이나 종합기술을 평가하며 격파물의 소재는 제한치 않음(주경연자 1명, 보조자 대동)

평가

예선전은 지정된 기준을 통과한 자를 합격시키고 최종전은 예선전 기준 이상을 참가자가 신청하

여 실시하며 상위자를 입상자로 한다.

시상

- 참가자 전원에게 대한 참가증서
- 6개 부문별 결승 진출자 5명 : 우수상 시상
- '95년 격파최강자 선발 : 결승진출자 중 3개 부문 최강자 선발, 트로피시상
- 최강자 선발 기준

최강자구분	평 가 방 법	격파물
손격파	바른주먹, 등주먹, 손날격파 합산	화강석(2.5cm 판재)
발격파	옆차기, 앞차기, 뒷차기 격파 합산	송판
요기격파	종합격파 기술시연으로 평가	

- 격파부문의 각종 기준

구분 \ 종목	손		발	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손날	주먹		소년부	성인부	소년부	성인부
격파물	벽돌	기와	송판	송판	송판	송판	송판
규 격	적벽돌		두께2cm	1cm	2cm	1cm	2cm
1차 예선	1매	10매	5매	2.5m	3m	2.1m	2.6m
2차 예선	2매	15매	6매	2.7m	3.5m	2.3m	2.65m
최종전	3매이상	16매이상	7매이상	2.7m초과	3.5m초과	2.3m초과	2.65m초과

국민학생 아람이

글/ 구 효 서
그림/ 이항원



어린이들이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나 하면 순진무구하기 때문이지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천진(天真)하다고 할까요. 하늘의 진실, 혹은 자연

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란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를 두고 천국에서 가장 적게 걸어나온 존재라고 말했답니다. 아직 그들

에게는 천국의 습성이 그대로 배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의 말대로라면 어른들은 천국으로부터 이미 너무 멀리 걸어나온 거겠지요. 앞만 보고 너무 멀리 걸어나온 나머지 이제는 돌아가

는 길조차 잊어버렸을 겁니다.

천진한 아이들이 재밌는 까닭은 아직 이 사회의 도덕률이 요구하는 규범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룩해 놓은 문명이랄지 사상의 체계 같은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이 지구라는 혹성 안에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본능만을 갖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어른들은 이미 지나치게 눈치가 들어 있고 욕망과 야심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염치와 체면의 노예가 돼 있는 것입니다.

한아름이라는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세 살 때부터 부모의 억척으로 학습지를 매일 풀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교사가 방문해서 지도해 주고 숙제도 내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아마 그것 한개 이상 하지 않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세살짜리 어린 한아름이도 날마다 그걸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열과 두통을 동반한 독감이 걸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얼굴이 벌겋게 붓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잠깐 놀라 부랴부랴 병원 갈 준비를 서둘렀지요. 그때 아름이가 잘 떨어지지 않는 입을 간신히 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안 해도 되지? 아프니까……”

어린아이들은 이토록, 눈물이 나게 순수한 것입니다.

하루는 아름이의 생일날 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맛있는 과일과 장난감 선물들을 사들고 오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두 분이니까 그만큼 선물도 많았던 것이지요. 아름이는 무엇보다 그 점이 좋았습니다.

“아유, 아름이는 좋겠네. 장난감이 많아서... 그 장난감들 다 어디서 샀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으면 아름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두 마리예요”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개 두 개만 셀 줄 알았던 한아름이가 이제 마리라는 단위 개념을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온 말이지요. 어떡해서든 그 말을 한번 써먹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한아름이가 올해는 어엿한 국민학생이 되었습니다. 얼마전부터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아빠한테 졸랐습니다. 그러나 웬 일인지 아빠는 허락해주질 않았지요. 그럴 시간 있으면 산수 문제 하날 더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공부 같은 건 못하게 된다는 게 아빠의 지론이었지요.

그러던 어느날 아름이 엄마가 아름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답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상상하면서 그리랬대요. 우리 아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야 뭐 태권도 선수를 그렸겠지. 그 놈은 자나깨나 태권도 타령이니까...”

아름이 아빠는 시큰둥하게 대

답했습니다.

“틀렸어요. 아름이는 황제를 그렸다고요. 머리에 멋진 왕관을 쓴 황제를 그렸단िका요”

“그래?”

아름이 아빠는 금방 회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간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으니가 그럴 만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출세하지 못했지만 자식 만큼은 크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이 아빠는 아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어서 열린 아름이의 가방을 열고 스케치북을 꺼냈지요. 거기에는 아닌 게 아니라 환란한 왕관을 쓴 황제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근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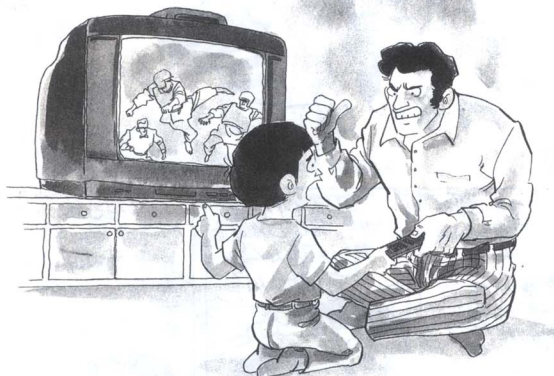
그러나 아름이 아빠는 그다지 흡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커다란 외침이 쓰여 있었으니까요. 아름이는 굵고 진한 크레파스로 이렇게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오늘부터 모두 태권도를 배우라!>

아름이가 지금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데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이 아빠는 아직도 아름이가 태권도를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한번은 아름이가 아빠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아빠와 다퉴 수 있는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두 부자는 어느날 싸웠습니다. 다투어난 텔레비전 채널 싸움이었지



요. 이런 채널 싸움은 부자간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체전 마지막 날이에요. 금메달이 결정되는 날이란 말예요. 우리 체육관에서도 결승에 올라간 형들이 있는데...”

아름이는 체급별 태권도 결승을 보자는 것이었고 아빠는 광복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겠다며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어린 아름이가 울상이 되어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일 가난해. 일성이네나 재학이네는 다 텔레비가 두 대데 우리만 한 대란 말야!”

“너석은... 일석이네나 재학이네가 텔레비전을 일부러 두 대씩이나 산 건 아니야. 쓰던 텔레비전이 낡아서 새것을 샀을 뿐

이지. 헌것은 버려야 하는데 아 이들 참비용으로 그냥 두었을 뿐이란단...”

엄마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름이는 화가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놀라자빠질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애들 아빠는 텔레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단데... 엄마, 우리 아빠 바뀐요, 네?”

오죽 태권도 결승을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아빠가 듣기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장 혼구멍을 내고 싶었지만 아름이 아빠는 구슬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너 당장 가방 좀 가져와 봐. 도대체 공부나 제대로 하면서

때를 쓰는 건지 공책 좀 보자!”

공부에서 꼬투리를 잡아 호통을 쳐야 평분이 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여전히 울상이 되어 가방을 가져왔고, 아빠는 우악스럽게 공책 한 권을 꺼내 펼쳤지요.

아단을 치려 했던 것인데 아름이 아빠는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5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던 아름이 아빠는 공책을 덮고 슬그머니 일어나 아름이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가봐야 할 일이 생겼잖아. 일 보는 대로 곧장 들어올게. 그 동안 아름이 태권도 결승 경기 보라고 해요.”

아름이 아빠는 뒷머리를 긁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아름이 엄마는 아빠가 덮고 나간 아름이의 공책을 다시 펴들었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 :

제일 좋아하는 가수-불라.

좋아하는 음식-햄버거.

좋아하는 운동-태권도.

취미-멜로디언 연주.

어린이통장 비밀번호-8973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우리 아빠> **태권**

구효서 / 작가

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

작품집으로는 <늪을 건너는 법> <확성기가 있었고 저격병이 있었다> <낯선 여름> <강통따개가 없는 마을> 등이 있다.

新

태권가족

췌마마보이편

> 이향원















당뇨병의 운동요법

김철준 / 의학박사

당뇨병은 체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또는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어 생기는 병이며 이로 인하여 혈당량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제Ⅰ형)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Ⅱ형)으로 나눈다. 제Ⅰ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원인인기는 하나 비만인 사람에게 잘 발생하며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잘 발생한다.

인슐린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인슐린은 음식물로 들어온 당을 간에 당원질이라는 물질로 저장하기도 하고 음식물을 과잉섭취하여 당이 남아돌 때에는 이를 지방산과 중성지방이라는 물질로 지방조직에 저장하기도 한다. 한편 인슐린은 혈액중의 당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일을 촉진시키고 근육 내에서의 당대사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근육에서 당을 에너지원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 환자는 이와는 반대로 간의 당원질이 당으로 분해되어

혈액내의 당의 농도를 높여주는 한편 근육이나 지방조직 등에서의 당이용률이 떨어지게 되어 혈액의 당 농도를 높히게 되고 그 결과로 인체의 여러 부위에 많은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한편 운동은 그 자체가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고 근육 등에서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당 이용률을 높혀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많은 양의 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체중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 동맥경화도 예방해 주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은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이 발견되기도 전부터 식이요법과 함께 치료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올바른 운동요법을 실천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는 그리 많지 않은것 같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운동요법을 위하여는 먼저 운동시의 에너지 대사와 인슐린의 역할, 그리고 안전하고 유효한 운동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운동과 에너지대사

운동시 근수축을 위하여는 산소와 함께 연료 즉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근수축에 필요한 주된 에너지원에는 당질과 지방질이 있다. 당질은 당원질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고 지방질은 중성지방으로 지방조직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운동의 종류나 강도, 지속시간 등에 따라 필요한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안정시에는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지방산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일부분은 당으로부터 약 10%정도 공급받는다. 그러나 운동시에는 주로 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당원질이 분해되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운동강도가 강할수록, 운동시간이 짧을수록 에너지원으로 당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운동강도가 약할수록, 운동시간이 길수록 지방산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중등도의 운동강도로 운동할 경우 처음 40분간은 간의 수요와 간의 당원질로부터의 당의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운동시간이 길어져서 간의 당원질을 다 소모하게 되면 락트산이나 피루브산, 알라닌 등의 아미노산, 지방산 등으로부터 당을 만들어내어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glyconeogenesis). 그러므로 중등도 이상의 운동강도로 40분이상 장시간 운동을 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원질이 고갈되어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산의 이용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난다. 운동시에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 혈청 인슐린 농도가 저하되고 역조절 호르몬(counterregulatory hormone)인 글루카곤, 카테콜아민, 코티솔 및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운동시의 인슐린 분비의 감소는 간으로부터의 당생산을 증가시키고 지방분해를 증가시켜 유리지방산의 동원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운동중의 근육의

당 이용률은 인슐린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되는데 이는 근육의 혈유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인슐린과 역조절 호르몬의 분비 및 그 혈중농도가 비정상적이므로 신체적인 운동에 대한 대사반응이 정상인과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제 I형 당뇨병에서 더욱 뚜렷하다. 제 I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사하면 혈청 인슐린 농도가 일정치 않아 혈당의 변동이 심한데 인슐린 부족으로 케톤증이 유발되었을 때 운동을 하면 혈당치의 상승이나 케톤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과잉상태일때 운동을 하면 저혈당에 빠지기 쉽다.

운동의 효과

당뇨병 환자에게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은 근육 및 지방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내당성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주므로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과적으로 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혈당량을 낮추게 된다.

운동은 비만한 사람의 체내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만을 수반한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운동은 당뇨병환자에게 잘 발생하는 동맥경화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어 이로인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증등을 예방하고 심폐기능, 근력 등 체력을 향상시키므로 당뇨병의 개선과 아울러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한다. 운동이 당뇨병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의 효과

1. 체력을 향상시킨다.
2. 비만을 예방하거나 개선시킨다.
3. 대사장애를 개선한다.
4. 혈중 지질농도를 개선한다.
5.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6. 심리사회적인 도움을 준다.

운동프로그램의 실제

당뇨병 환자의 운동원칙은 몇가지 주의사항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사람의 올바른 운동원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운동의 종류는 당뇨병의 치료효과를 위해서 단거리 달리기나 중량운동 등과 짧은 시간에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무산소성 운동(aerobic exercise)보다는 지구력을 요하는 유산소성 운동(aerobic exercise)이 좋다.

유산소성 운동 가운데서도 걷기나 조깅, 수영, 고정식 자전거, 계단오르기 등은 운동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상당히 정확하게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들이다. 그밖에 에어로빅 댄스, 배드민턴, 볼링, 골프(라운딩), 게이트 볼 등도 비교적 안전한 운동으로 할 수 있다. 반면 축구, 농구, 테니스, 스키 등의 운동들은 무산소성 부분이 많고 또 운동의 강도와 지속시간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외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당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산소성 운동은 심폐기능의 향상과 함께 당뇨병의 여러가지 대사장애를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의 운동요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함께 근력, 근지구력 및 유연성을 기르기 위하여 칼리스테닉스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운동은 일반 건강인보다는 운동강도를 약간 낮게하고 운동시간은 조금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제 I형 당뇨병의 경우 운동강도는 최대심박수의 40~85%정도, 운동시간은 20~40분씩 하고 제 II형 당뇨병의 경우 운동강도는 40~60%, 운동시간은 40~6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운동 빈도는 1주에 5~7일 정도로 일반 건강인보다 더 자주 하도록 한다. 운동강도의 기준이 되는 심박수의 측정은 목 측부의 경동맥이나 손목부의 요골동맥에서 측지하여 재는데 본운동 시작후 5분정도 지난후 운동을 잠시 중지하고 10초간의 맥박수를 재서 6배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측정할 심박수가 목표심박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운동강도를 좀 더 올리고 지나쳤으면 강도를 좀더 낮추도록 한다. 그러나 당뇨병성 신경염 등의 합병증

이 있는 경우에는 심박수를 이용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운동하도록 한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할 때에는 그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시의 소비에너지는 운동의 강도와 지속시간, 그리고 운동자의 체중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올바른 식이요법을 위하여 식품교환표를 사용하듯이 올바른 운동을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운동교환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운동교환표에서의 1운동단위란 1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운동의 강도 및 체중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시속 8km속도로 조깅을 할 경우 체중 45kg인 사람의 경우에는 16분(즉 2.1km), 체중 65kg인 사람의 경우에는 11분(즉 1.5km)정도 달리면 100칼로리가 소비된다. 만일 하루에 200칼로리 또는 300칼로리의 소비를 목표로 한다면 운동시간을 2배 또는 3배로 늘이거나 같은 단위만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면 된다.

(표 2) 운동교환표

(특정 체중인 사람이 100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한
운동시간 : 1운동단위)

운동종류	운동강도	40~49kg	50~45kg	60~69kg	70~79kg
걷기	시속 4km	44분	36분	31분	27분
	6km	35분	28분	23분	20분
조깅	시속 8km	16분	13분	11분	10분
	11km	12분	10분	8분	7분
수영	분속 20m	22분	18분	15분	13분
	30m	15분	12분	10분	9분
	40m	11분	9분	8분	7분
골프	연습장	66분	54분	46분	40분
정구	복식	22분	18분	15분	13분

이러한 운동교환표를 이용하면 목표한 만큼의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품교환표와 호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의 양에 따른 식사량의 조절이 용이하게 된다. 만일 목표 운동량보다 1단위의 운동을 더 하게 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100칼로리가 늘게 되므로 식품교환표의 곡류식품군에서 1교환단위의 음식, 즉 밥 1/3공기나 식빵 1개를 추가로 먹을 수 있다.

운동시 주의사항

운동은 잘 하면 당뇨병의 치료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여러가지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당뇨병 환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운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안전한 운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뇨병이 외의 다른 질병, 또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유무에 대하여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심장혈관질환이 있거나 망막염, 신경염, 신염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하여야 한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당뇨병 환자(250mg/dl 이상)가 운동을 할 경우에는 간으로부터의 당 생산이 증가하고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등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하여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간으로부터 많은 유리지방산이 케톤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케톤증이 잘 발생하여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현상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환자에게 특히 잘 일어난다. 그러므로 혈당농도가 높은 환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슐린 등으로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

당뇨병환자의 운동은 식이와 함께 치료하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게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경구혈당강화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되면 혈당조절이 개선되는데 이때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운동중 또는 운동후에 저혈당을 경험하게 되면 약의 용량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운동전후에 자주 혈당의 농도를 측정하여 운동의 양이나 식사의 양, 또는 약의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인슐린이나 경구혈당강화제 등 약물을 쓰는 경우 약의 작용시간에 따라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적당한 운

동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아침식전의 운동을 피하고 식후 1~2시간 지난후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이나 초콜렛 등을 주머니속에 지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간의 당원질 저장량이 적어 근육으로의 당 공급을 충분히 못해 주기 때문에 운동시 저혈당이 잘 발생하거나 지방산 이용율의 증가로 인한 케톤증이 잘 발생한다. 그리고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운동으로 인슐린의 흡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증가하여 과잉의 인슐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혈당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인슐린을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가 운동을 할 경우에는 저혈당이라고 하는 위험한 합병증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운동으로 인하여 근육에서의 당의 이용이 증가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주입된 인슐린 때문에 간으로부터의 당 생산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인슐린 뿐만 아니라 혈당강화제를 사용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환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약을 쓰고 있는 환자는 혈당이 가장 떨어지는 아침 식전보다는 식후 1~2시간 지난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운동으로 소비된 에너지만큼 식사를 늘려주어야 하고 혹시 생길지도 모를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이나 초콜렛 등을 주머니속에 지참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는 발에 많은 병변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운동시에 신발을 잘 선택해야 한다. 운동화는 잘 맞아야 하며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골프화나 볼링화, 스키화 등을 잘못 선택하면 발에 물집 등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운동시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탈수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탈수증은 당뇨병을 악화시키므로 운동전에는 물론 운동후에도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

태권도 경기장의 위치별 득점분포에 관한 연구

이승국 · 안용규 · 문원재 / 한국체육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 경기는 40여년의 경기사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처음에는 전세계에 한국의 전통 무예로서 태권도의 무도 정신과 품새 위주의 호신 기술을 보급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대인대전의 거루기에 비중을 두는 경기로서 각광을 받게되어 현재는 태권도가 세계적 스포츠로서, 또한 사회에서의 건강 스포츠로서 커다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태권도는 전세계 144개국에 보급되었으며 1994년 9월 파리에서 열린 I. O. C.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명실공히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을 체육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태권도의 경기측면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태권도에 관한 실증적 지식의 확대와 과학적, 사상적 지식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태권도의 외재적 발전과 더불어 운동기술면이나 이론적 측면에서도 박차를 가하여 경기측면에서의 학문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경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체육에서의 고유한 지식체계인 경기에 관한 실증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경기기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태권도 경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경기인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으며

로 경기 측면에 관한 연구가 빈약한 실정이다. 만약 태권도의 이러한 지식체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중추국으로서의 위기를 겪을 것이며, 태권도의 근원이 우리 조상들의 것이 아닌 일본의 가라테에서 비롯된 것처럼 혹자가 당연스럽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궤변이 진리로 받아들여 질지도 모른다.

태권도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튼튼한 뿌리(사상적 지식)와 나무의 충실한 동체(과학적 지식)가 존재해야만 나무의 가지와 잎(실증적 지식)이 자라고 훌륭한 열매(태권도의 지식체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태권도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기기술 및 내용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자는 비록 단편적인 연구이지만 경기현장에서 획득되는 득점은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결과는 경기자의 경기 중 심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경기장을 위치별로 나누어 득점의 분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자의 위치에 따른 공격 및 득점시의 심리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도자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연구에 착수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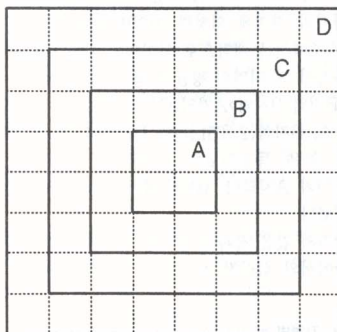
1) 본 연구의 대상은 태권도 국가대표 수준의 성인 남자선수들이 참가한 총 56게임에 국한하였다.

2) 득점의 판단은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정집에 명시된 득점 기준에 준하였으며, 전광판에 나타난 득점현황만을 득점으로 인정하였다.

3) 발차기별 득점에서는 좌, 우측 발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발차기의 득점으로 인정하였다.

4) 태권도 경기시 사용되는 여러 발차기 기술 중 득점이 나타나지 않은 발차기는 제외하고 득점이 나타난 돌려차기, 뒷차기, 들어찍기의 3가지 발차기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5) 본 연구에서 태권도 경기장(8m×8m의 정방형)을 <그림-1>과 같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위



<그림 1> 경기장의 지역별 구분 방법

즉, 경기장의 공인 매트가 1m×1m 로서 경기시에 득점분포가 높은 지역이 경기가 시작된 지역인지, 바깥 라인에 가까운 지점인지를 구별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각 지역별 면적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점선의 한칸은 매트 한장의 크기를 나타냄(1m²)

6) 득점이 발생된 지역을 판단하는 방법은 득점이 발생되는 순간 시점이나 기술이 종료된 지점을 득점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한 4개 지역의 밖에서 득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득점의 원인이 된 최종 기술이 시작된 지점을 해당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대회의 경기실적이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1994년도 최우수선수 선발대회의 각 체급별(8체급) 준준결승전 이상 7게임씩, 총 56게임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태권도 경기장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기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용지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득점의 명확성을 위하여 대한태권도협회 경기용 공인 전광판의 득점을 인용하였으며, 득점의 재확인을 위해 VTR을 이용하였다.

VTR에 수록된 총 56경기에 나타난 득점을 목측법으로 경기기록용지에 옮기고, 녹화되었던 전광판의 득점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에만 득점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득점이 발생한 지역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경기에 참가했던 지도자 2인이 직접 확인한 후에 기록하였다.

3. 자료 처리

태권도 경기장의 각 지역별 득점현황, 발차기별 득점현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SPSS /PC+를 사용하여 전산 처리 하였다.

III. 논 의

1. 발차기별 득점현황

태권도 경기중 발차기 기술에 따라 나타나는 득점의 차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와 같다.

상기의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발차기별 득점현황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있는 차를 나타냈다.

즉, 전체 56게임에서 획득된 득점은 총 307점,

〈표 1〉 발차기별 득점현황의 차에 대한 변량분석(ANOVA)

Source	D. F.	SS	MS	F比	F Prob.
Between	2	5.769	2.884	16.21	.0000
Within	53	9.431	0.178		
Total	55	15.200			

〈표 2〉 발차기별 득점현황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

구 분	M	SD
돌려차기	3.8571	3.2436
뒷 차 기	1.0178	1.0269
내려차기	.6071	.8272
Total	5.4820	

1게임당 평균은 5.48점이었다. 돌려차기에 의한 득점은 〈표-2〉과 같이 1게임당 평균 3.85점으로 전체 득점의 70.36%에 해당되는 높은 득점 분포이며, 뒷차기 득점은 1게임당 평균 1.01점(18.57%), 내려차기 득점은 1게임당 평균 .60점(11.0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기술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태권도 경기에서 나타나는 득점현황은 대부분 돌려차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 경기에서 정확한 발차기 기술은 중심이 기저면 위에 놓여있는 안정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기술의 동작 중에는 안정상태를 잃고 단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 동작을 마치면서 안정성을 되찾는 것은 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즉, 정확한 발차기 기술을 구사할 때는 뒷꿈치가 항상 지면으로 부터 떨어져 있으며, 기술의 종료시에만 지면에 붙어 있게 된다. 그러나 중심이 기저면보다 멀리 떨어질수록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1992, 안).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돌려차기의 기술은 동작시의 다른 발차기 기술보다 균형을 유지하기 쉽고 짧은 시간내에 기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득점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의 결과에 의하면 경기중 뒤후리기, 옆차기, 후리기, 주먹치르기 등에 의한 득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기 보다는 득점위주의 돌려차기나 뒷차기, 내려차기 등의 발차기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된 연구의 결과보다는 뒷차기나 내려차기의 득점이 보다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별 득점현황

태권도 경기장은 중앙지역에서 부터 바깥쪽 지역까지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총 56게임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득점의 차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상기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 득점현황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평균 득점은 〈표-4〉에서와 같이 B지역>D지역>A지역>C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B지역(2.051점)과 D지역(1.770점)에서 가장 높은 득점분포를 보여주었으며, C지역(0.655점)과 A지역(1.006점)에서 적은 득점분포를 나타냈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경기중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지역별 득점의 차에 대한 변량분석(ANOVA)

Source	D. F.	SS	MS	F比	F Prob.
Between	3	1.829	0.610	5.417	.0011
Within	52	171.775	3.303		
Total	55	172.604			

〈표 4〉 지역별 득점현황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

구 분	M	SD
A 지역	1.006	2.002
B 지역	2.051	1.511
C 지역	0.655	1.091
D 지역	1.770	2.457
Total	5.482	

특히, B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나타낸 것은 대부분 경기장의 중앙에서 경기가 시작된 후 단순공격보다는 스텝이나 연결동작에 의해 B지역으로 이동되어 득점이 나타나며, 득점상황은 선제공격에 의한 득점이 대부분이었다

D지역에서 많은 득점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공격자와 수비자의 심리적 상황이 득점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바깥 라인에 위치한 수비자는 라인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경고를 받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역습공격을 행하다가 득점을 빼앗기는 경우와 공격자가 상대를 라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행하는 동작에서 헛점이 노출되어 득점을 빼앗기는 경우였다.

따라서 D지역에서의 득점은 대부분 선제공격에 의한 득점보다는 역습공격에 의한 득점이 많았다.

A지역에서의 득점은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중심의 '시작'이란 말과 동시에 선제공격과 역습공격으로 대부분 1:1의 동시 득점상황이었다.

전체적인 지역별 경기 결과를 볼 때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선수 대부분이 스텝을 이용하여 중앙을 장악하고 상대를 외각으로 밀어내며 선제공격과 받아차기를 행하였다. 또한, D지역에서도 노련미와 침착성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찬스를 포착하여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선지도자나 선수들은 상기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득점상황에 따른 사례별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실전에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전국대회의 경기실적이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1994년도 최우수선수 선발대회의 각 체급별(8체급) 준준결승전 이상 7게임씩, 총 56게임을 대상으로 태권도 경기장의 위치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발차기별 득점현황, 각 지역별 득점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발차기별 득점현황에서 획득된 총득점수는 307점, 1게임당 평균은 5.48점이었다. 돌려차기

에 의한 득점은 1게임당 평균 3.85점으로서 전체 득점의 70.36%에 해당되는 높은 득점 분포이며, 뒷차기 득점은 평균 1.01점(18.57%), 내려차기 득점은 1.60점(11.07%)이었다. 통계적으로는 $P < .01$ 에서 유의있는 차를 나타냈다.

2. 위치별 득점현황에서는 B지역>D지역>A지역>C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장의 중앙 부분인 B지역(2.051점)과 바깥라인 부분인 D지역(1.770점)에서 가장 높은 득점분포를 보여주었으며 C지역(0.655점)과 A지역(1.006점)에서 적은 득점분포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는 $P < .01$ 에서 유의있는 차를 나타냈다. **태권도**

참 고 문 헌

- 김대식 : 세계로 뻗은 국기 태권도 교본, 서울, 남출판사, 1985.
- 대한태권도협회 : 태권도 경기 규정집, 대한태권도협회, 1994.
- 이승국 : 스포츠의 이론과 실기(태권도편), 지암사, 1992.
- 최영렬 : 겨루기론, 삼학출판사, 1988.
- 김세혁 : 태권도 경기의 공격 및 발놀림 유형에 따른 시도횟수와 성공도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안용규 : 태권도 경기중 들어찍기 기술의 득점력과 경기유형별 분석, 대한체육과학대학교 논문집 제7집, 1991.
- 안용규 · 조성담 · 이재봉 : 태권도 경기중 발차기 기술의 공격유형별 및 득점부위별 고찰, 용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총, 1994.
- 이승국 · 문원재 · 손제열 : 태권도 경기 기술에 관한 기본 발차기 유형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90.
- 이재봉 : 태권도 경기중 선제공격과 역습공격의 득점력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민간외교 수단으로서의 태권도의 역할

윤 종 완/ 상명여대 체육학과 교수

I. 머리말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은 고대에서부터 발생한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이다. 정치성이 배제된 스포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A. Naton(1969)의 말처럼 스포츠는 한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스포츠의 내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경쟁성, 공개성, 협동성, 비언어적인 전달성 등은 국가목적에 수행함에 있어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는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임변장, 1994).

따라서, 스포츠는 이를 통해서 국민의 자부심과 그 나라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한 국가의 전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스포츠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해 왔다. 태권도는 한국의 혼이 담긴 우리의 스포츠 문화로서 세계곳곳에 광범위 하게 보급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144개국(세계 태권도 연맹 자료)에서 우리말 “구령”과 “태극기” 앞에서 세계인의 스포츠로 노래를 펴고 있고, 드디어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안게되어 한국 스포츠 문화의 일대 쾌거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같이 태권도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의 보급을 통해 한국 국가 이미지 재고에 긍정적인 측면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한국정신을 심는데 결정적인 역할 수행 매체였다.

따라서 태권도의 외교적 기능은 각종 매스컴의 보도와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의 가시적 성과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태권도가 한국 민간 외교에 끼친 영향은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특유한 “자 문화 비하의식”으로 인해 태권도가 이룩한 각종 성과들은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되어 온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학계의 무관심한 요인과 병합하여 그간 거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신창화, 1993).

실제로 태권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국내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권도가 국위선양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국내에서도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민간 외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온 태권도 보급을 통해 세계속에 태권도가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태권도를 통한 민간외교 역할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II.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과 현황

1. 태권도의 보급과정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태권도의 질적,

양적 성장은 태권도의 세계화에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다.

한국 스포츠 문화로서는 최초로 세계곳곳에 보급되어 우리 토착문화의 유일한 세계화라는 성과를 얻게되어 국가이미지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창화(1994)는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제1단계는 1940년 초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 태권도의 해외 침투 단계이며, 제2단계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 초반까지의 해외 정착 단계이며, 제3단계는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세계화 완료 단계이며, 제4단계는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는 더 이상 한국만의 스포츠가 아닌 세계인의 스포츠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종주국 상실초기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1940년대초부터

1960년대 까지 약 20여년 동안의 태권도 행정적 체계화의 준비시기로, 그후 1963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 단체로 가입되고 전국체전에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시기를 출발점으로 태권도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미주를 비롯한 각국에 비공식 혹은 개인자격으로 파견된 태권도 사범들과 1960년 초반 베트남에 태권도 국군 교관단 파견, 1969년 태권도 사범들을 정부가 정식으로 파견한 해외 보급시기, 1972년 국기원의 건립, 1973년 세계태권도 연맹 창립, 1973년 세계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국내의 군소 도장의 정비로 태권도계의 행정적, 제도적 체계화 시기까지의 태권도 세계화의 정착시기, 1980년대에는 소위 I.O.C 83차 총회에서 태권도 종목 승인을 계기로 각종 국제 게임과 두번의 올림픽 시범경기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까지의 태권도 세계화 완료시

표 1. 태권도의 국내·외 연대별 특이사항

1961. 9. 16	대한 태수도 협회 창립
1963. 2. 23	대한 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로 가입
1965. 8. 5	대한 태권도 협회로 명칭 변경
1969.	정부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1972. 11. 30	중앙도장(국기원) 건립
1973. 1. 10	군소도장 정비(9개관으로)
1973. 5. 28	세계 태권도 연맹 창립
1973. 5. 25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창설(19개국 200명)
1975. 10. 8	국제 경기 연맹 총연합회 가입(GAISF)
1976. 4. 9	국제군인 체육회 23차 종목으로 채택(CISM)
1977. 8. 1	태권도 총본관 설립(9개관을 계열화)
1980. 7. 17	I.O.C 제1회 월드컵게임에서 태권도 채택
1983. 8. 13	판암게임 공식종목 채택
1983. 6. 20	아프리카 게임 공식 종목 채택
1986. 4. 22	남 아메리카 게임 공식 종목 채택
1986. 9. 30	제10회 서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개최(17개국 118명)
1987. 1. 9	동남 아시안 게임 공식 종목 채택
1987. 12. 5	남태평양 게임 공식 종목 채택
1988. 9. 17	제24회 서울 올림픽 시범종목 대회 개최(37개국 192명)
1992. 10. 7	바르셀로나 올림픽 시범종목 참가(40개국 128명)
1992. 12. 9	제1회 태권도 한마당 개최
1994. 9. 4	제103차 I.O.C 총회에서 2000년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세계 태권도 연맹, 대한 태권도 협회의 연혁에 의거하여 작성)

기로 구분하여 보았다.

1960년 이후 태권도의 국내·외 연대별 특이사항은 표 1에서 나타난대로 1973년 세계태권도 연맹 창립을 계기로 제1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 1976년 유럽 선수권 대회, 1983년 판암·아프리카 게임 채택, 1986년 남 아메리카게임 공식 종목 채택 등의 각종 국제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드디어 제24회, 25회 두번의 올림픽 시범 종목 실시후 1994년 9월 제103차 I.O.C 파리총회 및 콩그레스에서 IOC위원 85명(출석인원)의 만장일치로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2. 태권도의 보급 현황

우리의 고유무예인 태권도 보급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167개 가맹국 중 144개국에 보급 되었고 많은 국제경기 대회 또는 국내의 사범들에 의해 태권도의 보급이 확산 되기에 이르렀다.

표 2에서 지역별 세계 태권도 연맹 가입 회원국 수를 살펴보면 아시아 연맹에 47개국, 유럽연맹 37개국, 판암 연맹 35개국, 아프리카 연맹에 25개국 총 144개국이 현재 가맹되어 대륙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앞으로 회원국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태권도 사범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표 2. 지역별 회원국 수

대 륙 연 맹	회원국 수
아 시 아 연 맹	47
유 럽 연 맹	37
판 암 연 맹	35
아 프 리 카 연 맹	25
계	144개국

(자료제공, 세계태권도 연맹)

초기 이민 숫자가 많은 미국을 비롯한 판암 지역에 한국인 1,250 외국인 1,300명 도합 2,550 여명의 사범들이 활약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100여명의 사범들이 후배 지도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 숫자는 세계 연맹에 통보된 사범 수이고 노출되지 않은 사범숫자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에서는 지금까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한 외국인의 유단자(품) 인원현황을 보면 15세 이하의 유품자 19,692명(1품 1,797명, 2품 1,605명, 3품 109명), 유단자는 76,370명으로 (1단 54,784명, 2단 13,639명, 3단 5,033명, 4단 1,973명), 그외 9단까지 932명으로 총계 96,062명이 승단(품) 심사에 합격하여 자랑스런 단증을 받았다.

1970년대 들어 태권도 경기는 2년마다 한번씩 치러지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하여 지역별 대회 월드컵, 월드 게임, 군인 선수권 대

표 3. 지역별 태권도 사범 현황

(단위=천)

지역 \ 사범수	한 국 인	외 국 인	계	비 고
아시아지역	250	470	720	한국제외
유럽 지역	450	500	950	
판암 지역	1,250	1,300	2,550	
아 프 리 카	45	55	100	
계	1,995	2,325	4,320	

(자료제공, 세계태권도 연맹)

표 4. 품, 단별 인원 현황

품, 단 구분	한 국 인	외 국 인	계
1 품	666,984	17,978	684,962
2 품	198,135	1,605	199,740
3 품	45,969	109	46,078
품 소 계	911,088	19,692	930,780
1 단	1,732,403	54,784	1,787,187
2 단	134,269	13,639	147,908
3 단	48,662	5,033	53,695
4 단	22,160	1,973	24,133
5 단	7,615	595	8,210
6 단	2,371	225	2,596
7 단	885	74	959
8 단	478	37	515
9 단	64	10	74
10단	2		2
단소계	1,948,909	76,370	2,025,279
품단총계	2,859,997	96,062	2,956,059

(1993. 12. 3, 국기원자료)

회, 올림픽 시범 경기 등 약 13개의 대회가 매년 혹은 격년제로 치뤄지고 있어 태권도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Ⅲ. 태권도를 통한 외교적 성과와 역할

1. 태권도를 통한 민간외교의 성과

스포츠에 있어서 정치적 기능은 국제전쟁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스포츠의 순기능적 측면은 국민화합, 체력 향상, 인류평등주의, 국제 친선에 이바지 등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으나, 국가간의 외교수단으로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외교 수단인 일환으로 우리 태권도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큰 몫을 해왔다.

태권도가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되

어진 것은 철저하게 계획 되어진 국가 정책적 측면 보다는 우연이 이루어진 우발적 사건의 측면이 강하다(신창화, 1994). 초창기엔 개인 자격으로 각국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1969년 최초로 정부 파견 사범에 의한 정책적인 보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를 외국인이 좋아하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스포츠의 내재적인 특성인 규칙성, 공격성, 협동성, 비언어적 전달성, 성취감 등의 스포츠가 갖는 특성을 고루 갖추었고, 둘째는, 무도로서의 본질인 인내, 극기, 예의, 호신을 위한 기술, 용기 등을 통해 전통과 규범을 익히는 교육적 측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를 통한 민간 외교적 성과는 첫째, 순수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둘째는, 태권도의 수련과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특히 상경하에 정신, 예의범절, 협동, 순종 등의 한국 정신을 심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셋째, 각종대회참가 세미나 순회시범 등을 통해 한국 스포츠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태권도하면 한국을 연상하리만큼 우리말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올림픽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일어(유도)에다가 태권도의 공식 언어인 한국어가 올림픽 언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2. 태권도 주의(Taekwondoism)

태권도는 하나의 행동철학이며, 인간형성의 길잡이이다. 예절을 숭상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태권도 정신은 민족의 일과 혼이 깃든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로서 신체단련과 정신수양을 목표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자기극복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순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철학을 정립시켜주는 좋은 신체활동인 것이다.

또한 장인하고 용기있는 성품으로 변모시켜 매사에 주저함이 없이 앞장설 수 있는 통솔력을 길러주며, 강한 담력을 길러 모든일에 자신감을 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겸손과 인내심을 길러준다. 19세기 초 영국은 스포츠 예찬 사상인 아스레티즘(athleticism)을 제창하여 나약한 국민들에게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권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한다. 1950년대 부터 미국은 Physical Fitness 운동을 전개하여 심약한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권장했으며 독일은 "Trimm 130" 운동이란 캐치프레이즈로 맥박수 130이 되도록 항상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국민 계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같이 세계곳곳에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는 Sport for All 운동의 전개를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즐기는 신체활동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스포츠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에 포함된 예절교육, 통솔력, 희생정신, 규칙의 준수, 봉사, 상경하에 정신을 통해서 조국애를 심고, 나약

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며, 국가관을 확립하여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조상이 물려준 값진 유산을 다듬어 세계 곳곳에 우리의 태권도 정신을 전파하고 우리말 구령이 울려 퍼질수 있도록 태권도주의(Taekwondoism)를 주장한다.

IV. 맺는말

한국고유 무도 스포츠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에 보급되어, 드디어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영광을 안게된 태권도는 초창기 순수 민간 차원에서 각국에 보급되어 우리국가 이미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한국혼을 심는데 결정적인 역할수행의 매체였다.

따라서 태권도를 통한 외교적인 성과는 첫째, 순수민간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둘째, 태권도의 수련과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특히 상경하에 정신, 예의범절, 협동심, 순종의 미덕 등 한국정신을 심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셋째, 각종대회, 세미나, 순회시범 등을 통해 한국문화 특히 우리말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한국어가 올림픽 언어로 사용되는 영광을 얻었다. 또한 세계 144개국이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조국애, 예의범절, 상경하에 정신, 봉사, 협동, 인내심, 리더쉽 등을 길러 건전한 사회인 양성을 통해 태권도주의(Taekwondoism)를 주장하였다.

그동안 양적인 팽창이라는 기반위에 진정한 세계인의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는 간편하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경기단체의 합리적인 조직과 행정,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때 지금까지 태권도의 민간외교적인 다방면의 성과를 더욱 보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태권**

이번엔 꼭 이겨봐

정구성

여름과 싸워서 이긴 적 있니?
 이번엔 꼭 이겨 봐
 여름이 창가에 와서 살며시 눈길 주어도
 시침때고 모른 채 해 봐
 성질 급한 여름은
 제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말 걸
 때론 화난 얼굴로 먹구름도 데려오고
 때론 부드러운 얼굴로 매미 소리도 들려줄 거야
 그래도 또 다시 모른 채 해 봐
 참다 못한 여름은
 제 스스로 꼬리를 감추며
 수줍은 얼굴로 물러서고 말 걸
 어느새 그렇게 우리 곁에 왔다가
 수줍은 얼굴로 물러서는 여름에게
 너는 고개를 반쯤 들고 씨익 웃어 주란 말이야
 네가 KO 승이야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번엔 꼭 이겨 봐
 생각만으로도 질리는 이 여름을.

시 : 정구성

아동문예 작품상 당선으로 문단에 나옴
 한국아동문예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예작가회 사무국장
 동인 시집<함께 웃는 까닭은>

그림 : 이희탁/ 일러스트



제 30 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학 태권도 대회

무제한 5명 단체전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상무, 한체대, 리라공고 영예의 대통령기 차지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은 참가팀이
퍼어플레이와 명예를 존중하는 기풍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전년도 우승팀 한체대와 23년만에 결승전에 진출한 성균관대. 한체대는 3:0으로 승리, 2연패를 달성했다.

김제경, 페어플레이상 수상

중앙일보사, KOC공동 시상



태권도 헤비급의 간판 스타이자 세계 유일의 그랜드 슬래머인 김제경이 4월 10일 중앙일보사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동제정한 「3월의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

김제경은 '92 아시안선수권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승, '9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헤비급을 석권한 바 있다.

지난해말 김제경은 고향인 경남의 명예를 위해 전국체전 대표로 출전하였다가 다리 부상을 당한 바 있으나 재기에 성공하며 '95 국가대표로 선발됨으로써 오는 11월에 필리핀에서 개최될 '9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태권도 꿈나무들의 열전

제24회 소년체전이 15개 시도지부 1만 2천 8백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7일 개막되어 30일까지 4일간의 열전을 치렀다.

대전 신탄진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사흘간의 열전을 마감한 태권도 경기에서는 각 지방의 꿈나무들이 대거 발굴되었다.



오른발 돌려차기 득점 순간!



뛰어난 기량을 보인 서울의 권이안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여자 어린이의 매서운 발차기

어린이의 날을 맞아 5월 4일부터 6일까지 국기원에서 열린 제16회 어린이 태권왕 뽑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에서 힘찬 발차기로 상대방을 쓰러뜨린 어린이의 모습이 당당해 보인다.



외국인 태권도

3회째를 맞은 대사컵 외국인 태권도대회가 주한 외국인 수련자 209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7일 국기원에서 개최되어 품새와 겨루기 순서를 보 였다.

